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

202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김 은 혜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김 은 혜

인 준 서

김은혜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1년 4월

심사위원장 _____ 임 우 택



심사위원 _____ 김 지 혁



심사위원 _____ 김 현 경



심사위원 _____ 양 윤 권



심사위원 _____ 김 미 숙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응용윤리에
서 논의되고 있는 원칙들을 토대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
른 윤리적 접근을 통해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유
형별 대표적 사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위해 구조적 인식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택과 판단의 갈림길에서 도덕적 결
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 상황 속에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가
스포츠 영역에서 ‘정의(正義)’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윤리학의 한계와 응용윤리로서 스포츠윤리의 적용가능성에 대
해 고찰하였다.

스포츠윤리는 응용윤리에 한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인식이 부족하였다. 향
후 스포츠윤리 관련 연구에서는 응용윤리로서의 스포츠윤리를 바라보고 다
양하게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윤리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이론윤리학과와의 간극인
스포츠 현장의 윤리적 공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TAXTOM)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문제와 관계 간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의 문제로 발생 되는 유형과 관계 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유형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관계 간에서는 행위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문제유형 역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론윤리학적 지식과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응용한 응용(실천)윤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였다.

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원칙을 근거하여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였다. 스포츠윤리 원칙은 배려의 원칙, 무관용의 원칙, 정의의 원칙, 책임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스포츠의 특성인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공정성 등을 반영하였다. 윤리 문제에 있어 판단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도로서 다른 스포츠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설정된 원칙이 정답은 아니지만 스포츠윤리에 있어 판단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발판으로 스포츠윤리 원칙이 수정·보완되어 완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넷째,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 대표적 사례와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구조적 인식의 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한 사례분석은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향후 이러한 지속성을 띤 연구를 토대로 하나의 「스포츠윤리 사례집」이 제공된다면 문제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적인 도덕적 판단을 기초로 스포츠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해결방안에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①상벌 규정 내용의 세분화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②관련 기관(구단, 협회)에 대해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스포츠 구성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④스포츠윤리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①기본적 윤리의식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 ②윤리교육 주제 확대와 대상에 따른 유형별 세분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③도덕과 교과에서 ‘스포츠윤리’ 분야를 재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때 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기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풀이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듯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윤리의식이 올바르게 변해야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스포츠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사료 된다.

스포츠계는 당대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적 축소판’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스포츠윤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정당당함’, ‘공정성’, ‘정의’와 ‘용기’ 등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될 때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계를 생태계로 표현하자면, 스포츠 안에 구성원들은 복잡한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다. 이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

에 ‘스포츠맨십’이 있다. 즉, 스포츠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는 발생 빈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천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5
4. 연구의 제한점	7
5.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1
1. 응용윤리에 대한 이해	11
1) 응용윤리의 정의	11
2) 응용윤리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13
3) 응용윤리의 분야와 주제	15
4) 응용윤리의 주요 방법론	18
2. 스포츠윤리에 대한 이해	22

1) 스포츠윤리의 정의	22
2) 스포츠윤리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25
3) 스포츠윤리의 선행연구	28
3. 윤리 문제와 다양한 접근	34
1) 칸트의 의무론	34
2)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36
3) 매킨타이어의 덕윤리	39
4) 나딩스의 배려윤리	41
5) 요나스의 책임윤리	44
Ⅲ.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과 윤리	47
1.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	48
1) 빈도분석 결과	48
2)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9
3) N-GRAM 네트워크와 매트릭스 분석 결과	50
2. 응용윤리와 스포츠윤리 원칙	53
1) 생명윤리의 원칙	53
2) 정보윤리의 원칙	55

3) 직업윤리의 원칙	56
4) 응용윤리에 따른 스포츠윤리 원칙	58
IV. 스포츠윤리 원칙에 따른 문제분석과 응용윤리적 접근	63
1. 폭력과 폭행	64
2. 승부조작과 공정성	69
3. 판정오류와 편파판정	74
4. 도핑과 반도핑	79
5. SNS와 책임	84
V. 스포츠 영역에서의 실천적 논의	89
1. 제도적 측면의 실천	89
1) 상벌규정 세분화와 기준 강화	89
2) 기관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책임	89
3) 스포츠 구성원과 통합관리시스템	90
4) 스포츠윤리 교육과 의무교육의 제도화	90
2. 교육적 측면의 실천	91
1) 윤리의식과 교육	91

2) 주제확대와 유형별에 따른 윤리교육	91
3) 도덕 교과와 스포츠윤리 교육	92
VI. 결론 및 제언	93
1. 결론	93
2. 제언	9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응용윤리의 주제	16
표 2. 연구자별 스포츠윤리(학)의 정의	24
표 3. 스포츠윤리 주제별 연구동향	26
표 4. 공리주의의 원리	37
표 5. 배려윤리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42
표 6. 빈도분석 결과	48
표 7. N-GRAM 빈도분석 결과	50
표 8. 인간복제 찬반논란에 대한 철학적 접근	53
표 9. 비침과 칠드레스의 4가지 원칙	55
표 10. 학자별 정보윤리 원칙	56
표 11.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	58
표 12. 스포츠윤리 원칙 내용	60
표 13. 문제해석을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	62
사례 1-1. 폭력·폭행과 방관자	65
사례 1-2. 감독의 성폭행과 구단의 은폐	66
사례 2-1. 지도자가 가담한 승부조작	70

사례 2-2. 승부조작과 대처 사례	71
사례 3-1. 판정오류	75
사례 3-2. 편파판정	76
사례 4-1. 러시아 도핑 사태	80
사례 4-2. 유소년과 약물투여	81
사례 5-1. SNS와 폭로	85
사례 5-2. SNS와 비방	8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절차	6
그림 2. 윤리학의 분류	11
그림 3. 응용윤리의 주요 방법론	18
그림 4. 연역주의 추론 단계	19
그림 5. 스포츠윤리의 특성	23
그림 6. 공리주의의 의사결정 절차	38
그림 7. 배려 모델 과정의 단계	43
그림 8. 윤리적 공백	45
그림 9.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49
그림 10. N-GRAM 네트워크 분석 결과	51
그림 11. 매트릭스 차트	52
그림 12. 응용윤리 원칙과 스포츠윤리 원칙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도 스포츠현장의 각종 사건·사고는 현재진행형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과 대중들에게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김은혜, 박인혜, 김미숙, 2021: 60). 이는 스포츠가 그만큼 윤리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도핑, 심판매수, 불법도박, 음주운전, 폭행 등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스포츠계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박성주, 2019: 200).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의 소속인 A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오랜 선수생활 동안 팀의 감독, 주치의, 주장, 선배 등에게 여러 형태의 폭력을 당해왔으며 투신자살 전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고 메시지를 남기며 사건의 심각성을 암시하였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스포츠 폭력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를 간과한 스포츠인권 관련 기관의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2019년 1월,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성 B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코치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혐의를 고소하면서 스포츠현장에서 본격적인 미투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라는 보도자료(2020.04.28.)를 배포하면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열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등 설립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통해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도, 어떠한 누구도 도움을 갈구하였던 피해자

의 극단적 선택을 막진 못하였다.

연구자는 이 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결과, 첫째, 스포츠계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승리’, ‘1등’에 얽매이고 있다는 점과 둘째, 스포츠계는 결과로 인해 지위가 상승하고 권력이 따른다는 점, 셋째, 스포츠는 결과를 통해 많은 보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스포츠에 있어 경쟁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의 본질이 변질되고 결과 위주 또는 성과 위주 중심으로 평가되는 스포츠계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운동선수라는 점과 사건 발생 및 고발 시, 보복성으로 인해 자신이 추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기존 유사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서나 관련 협회·기관, 신고센터 등의 미온적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시적인 대처 모습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신뢰를 잃고 오히려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로 스포츠계가 더욱 깊어가기 전에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연구자는 우선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례를 통해 무엇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도적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면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올바른 판단과 대처에 관한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다.

즉, 스포츠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어떠한 경우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문제가 되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예시를 제시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시 응용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요컨대 스포츠가 추구하는 궁극적 모습이 인격 완성에 있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경기 상황과 스포츠인의 행동에서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미숙, 2004: 30).

따라서 스포츠 상황 속 문제에 있어 윤리적으로 왜 어긋나고, 어떤 윤리적 원리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금지시킬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가지는지를 윤리학적으로 고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박성주, 2019: 207).

이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스포츠윤리의 원리나 근거, 증거와 판단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존의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드물고, 특히 스포츠윤리는 실천규범 윤리학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매우 부족할뿐더러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너무나 이론규범 윤리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현택(2006)은 “스포츠윤리학은 어디까지나 스포츠라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윤리학이다.”라고 하였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적당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주는 규범적인 역할이 응용윤리학으로서의 스포츠윤리학의 역할일 것이라고 하였다.

박성주(2019: 206-208) 역시 ‘스포츠윤리학은 응용윤리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다른 응용윤리 분야에서처럼 대부분 윤리학에서 개발된 이론을 스포츠에서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내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독립적 연구로 수행됐는데, 스포츠윤리 관련 주제들의 성격은 복잡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타 다른 응용윤리 분야처럼 타 학문과 상호협력 하는 연구가 효율적”이라고 설명하였다.

Frankena(1963)은 ‘스포츠윤리학은 윤리학의 범주 구분에서 볼 때, 규범윤리학 중에서 응용규범 윤리학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는 스포츠윤리가 응용윤리의 분야이며 그에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스

스포츠윤리 특성에 맞는 실천윤리로서 응용윤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필요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스포츠윤리에 준거와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더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론윤리학 중에서 스포츠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실천적 의미로서 대두되고 있는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를 기반으로 응용윤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칙들을 토대로 스포츠윤리 특성에 맞는 원칙을 구안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이라는 주제 아래,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스포츠윤리 원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형별 대표 사례와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윤리학의 한계와 응용윤리로서 스포츠윤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이론윤리학과와의 간극인 스포츠 현장의 윤리적 공백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이론윤리학적 지식과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응용한 응용(실천)윤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한다.

넷째, 문제분석을 위해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다섯째,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적인 도덕적 판단을 기초로 스포츠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방법

실천(응용)규범 윤리학은 단순한 윤리이론의 응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거나 그 자체로 상대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는 윤리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박병기, 2003: 1).

요컨대 응용윤리학의 특징은 하나의 열린 과정(an open process)이라는 점이다. 즉 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해결방안이 경쟁하고 있기에 열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응용윤리학의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론 또한 다양할 수 있고 다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다(안옥선, 2003: 138).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이론규범 윤리학과 실천규범 윤리학의 원칙을 바탕으로 구안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기초로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①이론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文獻研究, literature review)방법과 ②응용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분석(事例分析, case study)¹⁾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사례연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각종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특성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진단/기술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김춘경 외, 2016).

먼저 문헌연구(1차)를 통해 본 연구의 키워드인 윤리학의 등장배경을 시작으로 이론윤리학의 한계와 응용윤리의 출현을 고찰하고, 사례분석(2차)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이에 따르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구조적 인식의 틀을 개발하고 이를 응용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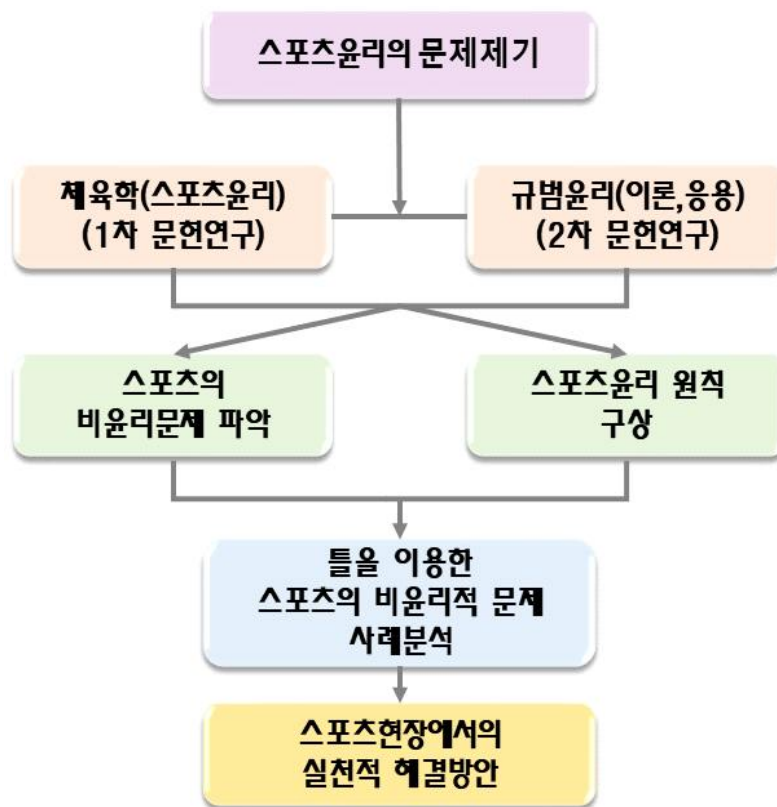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위해 ①응용 윤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원칙을 토대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고 ②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문제해석을 함으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유형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폭력과 폭행, 승부조작, 편파판정, 도핑, SNS 문제로 범위를 제한하여 문제해석과 응용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5. 용어의 정의

1) 이론윤리학(theoretical ethics)

이론윤리학은 이론규범 윤리학이라고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론윤리학으로 통일해서 볼 것이다.

2) 응용윤리(applied ethics)

응용윤리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실천적인 쟁점이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을 모색하는 윤리로서 쟁점이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생명윤리, 환경윤리, 정보윤리, 기업윤리, 가족윤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응용윤리와 응용철학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 교육, 예술

등의 분야를 포괄하기 위해 응용철학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윤리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Almond, 2011).

응용윤리를 실천윤리, 문제중심의 윤리, 응용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용윤리로 통일해서 볼 것이다.

3) 스포츠윤리(sports ethics)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의미(이천희, 1995: 2)하는 것으로, 스포츠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이치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원리, 옳고 그름, 도덕적 기준에 관련된 것이며, 스포츠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다(한국프로스포츠협회, 2017: 11).

4) 덕윤리(virtue ethics)

덕윤리는 근대의 윤리학이 강조해오고 있던 행위 중심에서 벗어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간 내면의 발전과 성장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정택, 2017: 70).

행위자 중심윤리학은 시기적으로는 고전적 덕윤리와 오늘날의 덕윤리로 구분되고, (형이상학적)목적론을 전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전적 덕윤리는 전적으로 목적론적인데 반해 오늘날의 덕윤리는 일부 학자들이 목적론을 받아드릴 뿐 많은 학자들이 목적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주석, 2018: 16).

즉, 의무론과 결과주의가 올바른 행동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반을 두고 있다면, 덕윤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인격 중심의 윤리이다.

5) 배려윤리(caring ethics / ethics of care)

배려윤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의 근원적 현실을 ‘관계성’에 두고 있으며, 도덕적 자아도 원자론적인 자아가 아닌 관계 속의 자아를 강조하는 것으로, 배려의 관계에 기초한 배려 윤리학은, 인간은 관계 안에서 정의된다는 관계 존재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 존재론에 기초한 배려윤리에서 ‘나’란 끊임없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는 한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자체로서의 ‘나’이며 이러한 ‘나’는 내 육체적 자아가 놓여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실제로 정의된다(문정애, 2009: 20).

즉, 배려하는 자의 일방적인 배려가 아닌 배려하는 자는 배려받는 자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배려받는 자가 수용을 할 때 비로소 ‘배려’라 할 수 있다.

배려윤리를 돌봄윤리, 케어윤리, 보살핌윤리라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배려윤리로 언어적으로 통일해서 볼 것이다.

6) 책임윤리(responsibility ethics)

책임윤리는 인간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다른 생명까지도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총체성을 지닌 윤리이며, 한스 요나스(Hans Jonas, 1903~1993)는 기술의 영향에 의해 인간행위가 권력화되었고, 미래까지도 지속적인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비판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가지도록 요구한다(김명은, 2018: 2).

7) 윤리적 공백(ethical vacuum)

요나스는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이 윤리규범이나 의식의 속도가 차이가 나서 생기는 공백을 ‘윤리적 공백’이라 하였다.

스포츠계도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술의 발달과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며, 새로운 문제의 해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의 발

생하고 점점 갈수록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를 ‘스포츠계의 윤리적 공백’이라 표현하였다(김은혜 외, 2021: 60).

8) 원리(原理, principle)와 원칙(原則, principle)

원리(原理)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로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원칙(原則)은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의미한다. 원리와 원칙은 비슷한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영문표기로는 ‘principle’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리와 원칙을 통일하기보다는 선행연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고 혼용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응용윤리에 대한 이해

1) 응용윤리의 정의

현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생활에 긍정적인 측면을 주는 반면, 생각하지 못한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 상황을 초래하여 새로운 윤리적 문제 발생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등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응용윤리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2>를 통해 응용윤리의 분류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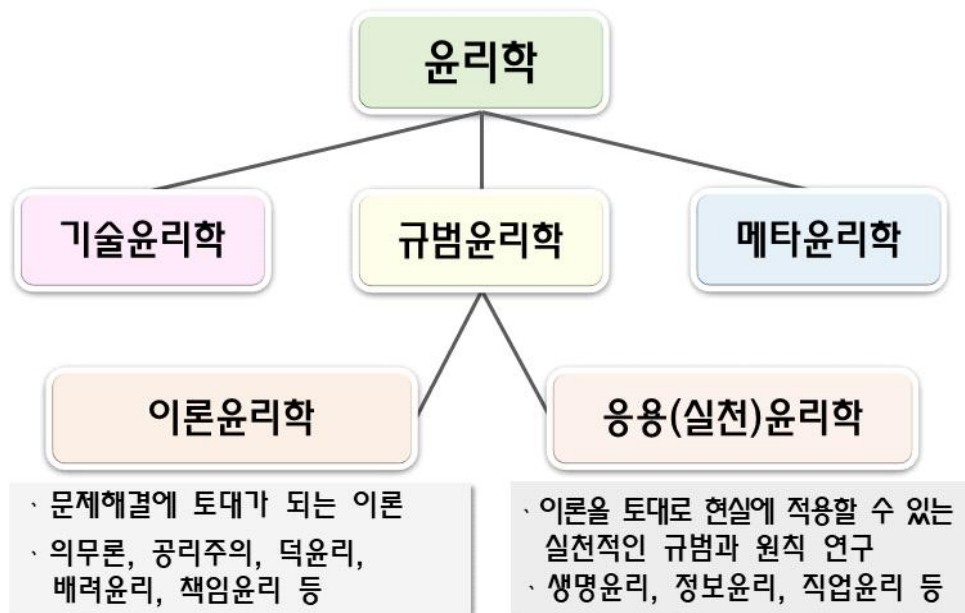


그림 2. 윤리학의 분류

윤리학은 크게 기술윤리학(descriptive ethics), 메타윤리학(meta ethics), 규범윤리학(normative ethic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theoretical ethics), 응용(실천)윤리학(applied ethic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윤리학은 이론규범윤리학이라고도 하며, 어떤 원리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종류로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책임윤리, 배려윤리, 정의윤리, 심정윤리, 담론윤리 등을 말한다.

응용윤리학은 실천윤리학, 응용규범윤리학이라고도 하며, 이론윤리학보다 더 구체적인 원리나 규칙을 발전시켜 현실의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당화 작업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종류로는 생명윤리, 정보윤리, 직업윤리, 환경윤리, 성윤리, 가족윤리, 사회윤리, 평화윤리, 문화윤리 이외에 새로운 윤리 문제의 등장과 사이버윤리, 의식주윤리, 식물윤리 등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박찬구(2020)는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생기는 윤리 문제들을 윤리의 기본원리와 대표적인 이론들에 근거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응용윤리”라 하였다. 윤리란 원래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이론윤리(theoretical ethics)가 주로 순수한 이론적 측면을 다룬다면, 응용윤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실천적 성격이 더욱 강하고, 그래서 응용윤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삶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헤쳐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찬구, 2020: 5).

문종길(2016)은 사형, 시민 불복종, 종교, 예술, 사회문화, 낙태, 성(性), 안락사, 생명, 환경, 과학기술처럼 지금 논쟁이 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들을 ‘윤리 이론’과 다양한 학문적 성과 도움을 받아 윤리적으로 적절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응용윤리’라 하였다.

안옥선(2003)은 문제가 규정되거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획일적이지 않으며, 동일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응용윤리학은 하나의 열린 과정(an open process)이라 하였다. 그래서 응용윤리학의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론 또한 다양할 수 있고 다각도에서 모색될 수 있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응용윤리학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고, 어떤 해법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다면 왜 그러한지 검토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함은 물론 응용윤리학의 바람직한 발전이나 지향 방향에 대한 모색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응용윤리학은 단순한 윤리이론의 응용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윤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거나,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가는 윤리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박병기, 2003: 1-2).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 삶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윤리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규명이 필요하고, 복잡한 윤리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응용윤리’이다.

2) 응용윤리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영미 윤리학계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분석윤리학적 주제에서 규범윤리학적 주제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시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평등, 정의, 시민불복종, 평화주의 등 대중적이고 실천적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전은 인공수정, 임신중절, 환경오염 등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여,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윤리학을 고전적인 규범윤리학과 구별하여 응용윤리학(applied ethics) 혹은 실천윤리학(practical ethics)이 등장하였다(김상득, 2003: 6).

실천적 문제에 관한 관심은 오늘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철학의 역사만큼 오랜 전통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홉스, 흄, 칸트, 밀 등 수많은 철학자가 전쟁이나 여성해방, 자살 등 실천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응용윤리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상득, 2003: 7).

응용윤리의 등장은 현대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에 관련이 깊다. 현대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윤리적 쟁점과 딜레마를 초래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되었다(배문규, 2016: 111).

최근에 서양윤리학에서 응용윤리와 응용윤리학에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20세기 서양철학이 주로 분석철학과 현상학 등 이론철학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해왔던 실천철학에 관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내적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서의 철학, 특히 윤리학에 관한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박병기, 2003: 3).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실천윤리학적 태도를 지향해야 하며,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론윤리 외에 문제 상황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천윤리학적 탐구로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과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정탁준 외, 2020: 17).

현대사회의 변화는 빠르고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회의 구조나 제도 등도 복잡해져서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주로 이론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규범윤리에 의해서는 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비해 응용윤리는, 규범윤리는 물론 메타윤리도 적용·활용하는 종합 윤리로서의 성격과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사회의 구조나 제도, 정책 등과 관련된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실천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현대사회에서 응용윤리학이 새삼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남궁달화 외, 2014: 48).

이렇듯 응용윤리는 문제에 있어 판단하는 기준을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체의 실제적인 도덕적 결단의 문제로 전환함으로써 이전에 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응용윤리학의 탐구와 적용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응용윤리의 분야와 주제

응용윤리가 다루는 도덕적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와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2015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있는 응용윤리의 주제 내용이다. 2007개정에는 응용윤리의 주제로 ‘문화와 윤리’ 영역 속에 ‘스포츠와 윤리’ 부분이 있었는데 2009개정부터는 부분이 빠지게 되었다. 스포츠윤리도 응용윤리의 한 영역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차후 교육과정에서는 스포츠윤리라 하여 체육교과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생활과 윤리’ 부분에서도 ‘스포츠윤리’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한 부분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표 1. 응용윤리의 주제

영역	요소	주제
생명윤리	삶과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하는가? ◦ 뇌사 안락사 등을 허용해야 하는가?
	생명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 윤리와 생명과학은 양립할 수 있는가? ◦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등과 같이 인간 생명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가? ◦ 동물 실험을 허용해야 하는가?
	사랑과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의 상품화는 허용할 수 있는가? ◦ 현대사회에 적합한 부부간의 윤리와 가족 윤리는 무엇인가?
사회윤리	직업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가?
	사회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 무엇인가? ◦ 소수자 우대 정책을 인정해야 하는가? ◦ 사형 제도를 허용해야 하는가?
	국가와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시민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가?
과학윤리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과학 기술자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보와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는 창작자 개인의 소유물인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인가? ◦ 정보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닌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환경 보전과 개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문화윤리	예술과 대중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의식주와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와 윤리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현대사회에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다문화와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보편 윤리는 양립할 수 있는가? ◦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윤리	갈등해결과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바람직한 소통은 무엇인가?
	남북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 바람직한 남북통일의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인가, 자선인가?

출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2020)

응용윤리학의 주제가 되는 도덕문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지니며, 이론적 반성 작업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적 해결책의 제안을 목표로 한다 (김상득, 2003: 26).

- ①도덕적 옳음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규범적 문제이다.
- ②이론의 정교화를 위해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가상적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life itself)가 제기하는 실제적 문제를 다룬다.
- ③규범적 성격을 지니지만, 도덕문제는 경험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경험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도덕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 ④응용윤리학은 일반적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다.

4) 응용윤리의 주요 방법론

응용윤리의 주요 방법론은 크게 다섯가지 모형으로, 윤리 문제에 있어 판단은 규범이론에서 의거해야 한다는 ‘연역주의’로부터, 이론에 대한 일체의 모델을 거부하는 ‘상황윤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나머지 세 가지 모형은 두 이론 사이에 위치한다.

현대 응용윤리학에서 이 모델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도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박찬구, 2012: 17).



그림 3. 응용윤리의 주요 방법론

(1) 연역주의(deductivism)

고도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제1원리로부터 구체적인 행위의 지침이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칸트의 정언명법이나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의 원리 등이 윤리적 갈등 사례들에서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원리들에 비해 합리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박찬구, 2012: 15).

연역주의는 주어진 어려움을 피하는 입장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이며, 귀납

주의 이론적 요소가 모든 단계에서 과학에 진입하고, 귀납적 일반화는 적절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연역주의의 기본 개념은 이론이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해 연역적으로 테스트된다는 것이며, 귀납주의와 연역주의는 과학적 설명과 예측의 관점을 공유한다. 즉, 전제(이미 알고 있는 판단)를 근거로 결론(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추론이며, 연역주의 추론 단계는 <그림 4>와 같다.

연역주의는 도덕적 삶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윤리이론들과 원칙들을 먼저 원칙들이 적용되는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만, 관심을 거의 두지 않는다. 추상적인 보편 도덕 원칙들 또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려고 하므로 사례가 지닌 특성들을 간과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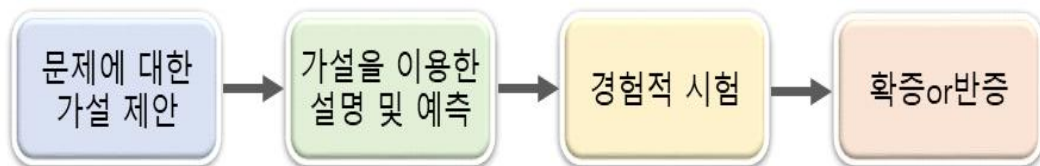


그림 4. 연역주의 추론 단계

(2) 변증법적(Dialectical) 모형

변증법은 이성적 주장을 통해 진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담론(談論)으로, 대화법, 문답법이다. 즉, 모순을 통해 진리를 찾는 철학방법으로, 변증의 방식은 정명제와 반명제를 사용하여 이들 간에 모순되는 주장의 합명제를 찾거나 최소한 대화가 지향하는 방향의 질적 변화를 일구어내는 논법이다(Wikipedia, 2020).

변증법의 일반적 구조는 <시원(Anfang)→진전(For tgang)→종결(Ende)> ,

〈첫 번째 것→첫 번째 것의 부정→두 번째 부정〉, 〈직접성→매개성→직접성의 회복〉, 〈즉자→대자→즉자대자〉, 〈보편→특수→개별〉 등으로 다양하게 정식화되지만, 기본적으로 삼분법의 양식을 취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20).

연역주의의 근본주의적 성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를 변증법적 방식²⁾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규범이론의 원리들과 특수한 도덕 판단들 사이에 어떤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규범적 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과 상식의 검증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닌 상식적인 도덕적 신념들 또한 어떤 원리와의 일치를 위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박찬구, 2012: 15).

(3) 원리주의(principlism) 혹은 최소(minimalist) 전략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규범적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결과주의나 의무론적 이론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슷하게 작용하며, 양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서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인 윤리 문제는 이른바 “중간 수준(middle-level)”원리에 의해 다룰 것을 제안한다. 중간수준의 원리란, 모든 이론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이론의 지지자들도 받아들일 만한 원리를 의미한다. 즉 이 원리들이 적절하게 적용될 경우, 결과주의자와 의무론자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변증법적 모델의 형태는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반성적 평형의 방법”으로 원초적 입장을 규정한 상황의 조건을 변경하기도 하고, 잠정적 고정점의 판단을 철회,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적 평형은 지나치게 비결정적이라 모든 집합들이 전부 수정이 가능하여 무엇 하나 고정된 집합들이 없다. 또 반성적 평형 그 자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론의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 결의론적(casuistical) 모형

도덕의 일반원리를 특정한 구체적인 인간행위의 갈등적 상황에 적용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전통적 규범이론들 간의 논쟁에서 벗어나 실천적이고 행위 지향적인 사고를 중시한다.

실천적 사고를 위해 타당한 모델로서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에 유행했던 사례 중심(case-based)접근법을 제시한다. 사례 중심 접근법은 윤리적 검토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의 일정한 범주 사례(paradigm cases)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범주 사례로부터 미묘한 현안사태에 이르는 논증은 양자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행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연역적 추리보다 유비(analogical)³⁾추리를 중시한다(박찬구, 2012: 16).

결의론은 시작점이 되는 도덕적 전제를 결여하고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유비추론은 논증의 과정에서 결론의 진실을 보장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다. 규범의 안정적 틀이 없다면 우리는 판단에 대한 통제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 있거나 졸렬하게 형성된 사회적 관행을 막을 방법을 결여하고 있다.

(5) 상황윤리(situation ethics)

우리는 모든 일반적인 행위 지침에서 벗어나 특수한 상황의 세부적 측면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특수한 도덕적 문제들의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 모델은 결의론적 모델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급진적이다. 여기서는 범주 사례조차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바, 이는 범주 사례가 해당 사례의 구체적 맥락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상황 윤리란 실천적 사고의 모델이라기보다 일체의 모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박찬구, 2012: 17).

3) 유비추리란 유사를 기초로 하여 수행하는 추리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A는 b,c,d,e이다'와 'B는 b,c,d이다'에서 'B도 e이다'라는 형태의 추리이다.

2. 스포츠윤리에 대한 이해

1) 스포츠윤리의 정의

스포츠윤리(sports ethic)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스포츠행위를 할 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윤리’이며(우리말샘, 2020),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원리, 옳고 그름, 도덕적 기준에 관련된 것이며, 스포츠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스포츠윤리는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직면하는 윤리 문제 해결의 원리나 행위지침을 제시해주는 규범체계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니며, 스포츠 현상의 윤리적 실재에 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스포츠의 참여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 양식들을 제시하는 실천학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8).

스포츠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행위가 윤리이며, 대표적인 윤리적 관점은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이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에서의 목적은 스포츠 자체에 있어야 하고, 그 활동을 통하여 도덕성을 함유한 성숙한 인격체로 고양되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김슬기, 2014: 6), 이 목적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진, 2006: 70).

하지만 오늘날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승부조작, 금권주의, 폭력, 성차별, 성폭행, 인권침해 등의 비윤리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윤리의식을 개선하는 교육, 스포츠가 추구하는 본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김슬기, 2014: 6-7)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윤리는 응용윤리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스포츠인으로서의 개인윤리, 직업적 측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직업윤리, 사회의 구조와 질서, 사회제도의 틀을 거시적으로 문제 삼는 사회윤리적 측면을 모두 가지며, 예방윤리(preventive ethics)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체육철학회, 2015: 9), <그림 5>와 같이 스포츠윤리, 개인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예방윤리는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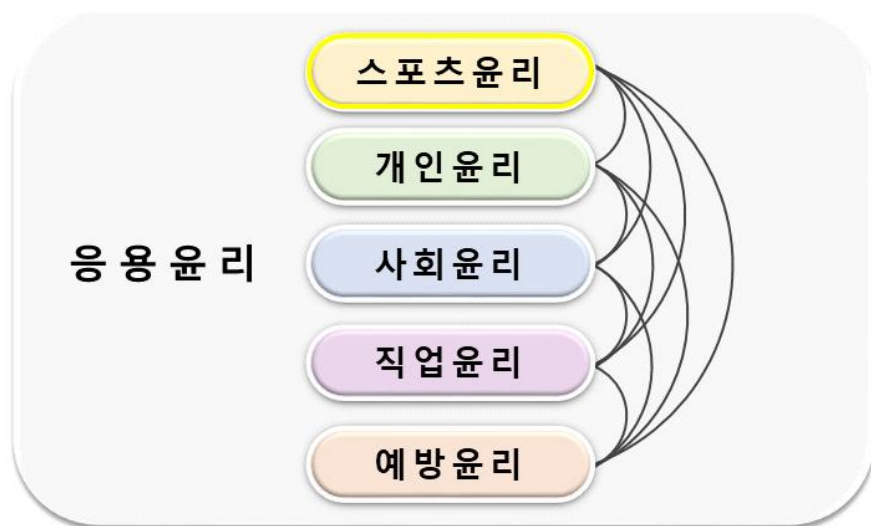


그림 5. 스포츠윤리의 특성

그 외 스포츠윤리에 대해 김상겸(2010)은 스포츠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를 가르치는 이치를 스포츠윤리이며, 스포츠현장인 스포츠경기나 스포츠활동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기본적인 원리를 준수하는 올바른 행위규범이라고 하였다.

4) 예방윤리(preventive ethics)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앞서 깊이 생각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2014)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에 요구되는 행동원리, 도덕적 표준, 도덕적 특성에 관한 탐구라 하였으며, 이제현(2019)은 스포츠윤리는 스포츠인들의 역할과 직업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윤리적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표 2>는 연구자별 스포츠윤리(학)의 정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표 2. 연구자별 스포츠윤리(학)의 정의

연구자	년도	정의
이천희	1995	스포츠윤리란 스포츠 행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의미하며,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행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스포츠윤리학
김동규, 구강본	2007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학문
강성민	2013	넓게는 전체 윤리학의 범위 내에서, 좁게는 규범윤리학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스포츠라는 실천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나 덕목들을 제시하고 스포츠 맥락 속에서 도덕 판단의 근거로서 준거/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음
한국체육 철학회	2015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right), 어떤 목적이 좋은가(good)를 결정 할 수 있는 근본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
박성주	2019	윤리학을 토대로 두고, 스포츠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또는 윤리적 행동의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도덕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스포츠철학의 한 분과
김정효	2020	스포츠에 종사하는 특정 집단 및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과 스포츠규범의 도덕적 원리를 밝히는 학문

즉, 스포츠윤리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스포츠윤리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사람(선수, 지도자, 기관, 학부모, 관중 등)이 행동함에 있어 지켜야할 실제적 도덕규범이라 할 수 있다.

2) 스포츠윤리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스포츠윤리학은 1970년대 이후 영미 스포츠 철학계에서 스포츠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에 관심을 두고,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윤리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고 있으며, 1980년대 약물에 의한 도핑에 관련된 윤리적 담론의 형성시기를 거쳐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핑, 폭력, 양성평등 등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윤리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강성민, 2013: 107).

미국에서 1980년대 최초의 스포츠윤리학에 관한 저서⁵⁾를 시작으로 학술적 개념을 갖추게 되었으며, 영국과 유럽에서는 1990년대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교과목들이 개설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스포츠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윤리 연구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의 스포츠윤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윤리의 개념 정의나 단순한 윤리적 담론에서 벗어나 (성)폭력, 도핑, 불평등, 승부조작 등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김지호·김재형·박성주, 2017: 72-73).

국내에 스포츠윤리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김지호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1992년~2016년 한국체육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스포츠윤리 영역인 144편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영역은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윤리적 담론, 스포츠 속 불평등, 도핑과 경기력 향상, 스포츠조직과 윤리, 스포츠와 폭력, 스포츠 속 환경윤리 및 동물윤리, 스포츠와 인권에 관한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연구의 동향을 <표 3>⁶⁾에서 알

5) Fraleigh, Warren P.(1984)의 「Right Actions in Sport: Ethics for Contestants(올바른 행동: 참가자를 위한 윤리)」

수 있듯이, 스포츠와 윤리적 담론, 스포츠와 인권, 경쟁과 페어플레이, 도핑과 경기력 향상, 조직과 윤리, 스포츠 속 불평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와 윤리적 담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여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를 진단하는 스포츠윤리에 도덕적 판단 기준이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3. 스포츠윤리 주제별 연구동향

연도	스포츠 와 윤리적 담론	경쟁과 페어 플레이	불평등	환경윤리 및 동물윤리	스포츠 와 (성)폭력	도핑과 경기력 향상	스포츠 와 인권	조직과 윤리	계
1992 ~ 2016	32	34	18	8	12	17	7	16	144
2017	2			1		1			4
2018	3		1			1	2	1	8
2019		2					2	1	5
2020		1					2		3
	37	37	19	9	12	19	13	18	164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각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스포츠 영역에서 고양하는 것

6) 김지호, 김제형, 박성주(2017)의 <표 3>은 스포츠윤리 주제별 연구동향을 토대로 한국체육학회지에 게재된 2017~2020년의 연구동향을 추가로 조사함.

이 스포츠윤리의 역할이자 필요성이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8-9).

스포츠산업의 발달과 성적 및 승리지상주의로 스포츠계에는 다양한 비윤리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럴 때마다 스포츠에서의 윤리의 중요성과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윤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스포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윤리적인 쟁점들을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스포츠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인 사례들을 학습함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분석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습득시키는 것이다. 즉 “스포츠인의 도덕적 자율성⁷⁾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10).

7) 도덕적 자율(moral autonomy)이란 도덕적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도덕적 사고를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상황들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한국체육철학회, 2015: 10)

3) 스포츠윤리의 선행연구

(1) 스포츠윤리의 개념 정의 및 담론

김미숙(2004)은 스포츠윤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 인식 재고를 위해 스포츠윤리학의 학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종왕(2006)은 스포츠윤리를 규정할 때가 됐으며, 규범윤리의 한 유형으로서 스포츠윤리는 스포츠인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규정하는 형식을 가져야 할 것이고, 스포츠행동에 윤리성을 귀속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의무론보다 결과주의적인 접근방법이 스포츠윤리에 더 적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김동규와 구강본(2007)은 스포츠현상의 윤리학적 지향성에서는 공리주의와 의무론 입장을 논의하고 두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제3의 입장으로 덕윤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스포츠윤리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선행, 사회적 이익에 근거한 스포츠윤리의 기준, 그리고 결과, 과정, 동기에 대한 도덕적 보편성의 설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의 실천과제로 스포츠윤리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 스포츠 윤리강령 제정 및 조정시스템 구축, 스포츠행위자에 대한 교육, 녹색윤리의 지향을 설정하였다.

김정효(2013)는 거시적 관점에서 스포츠윤리학의 담론을 비판적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스포츠윤리학 담론이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요청은 도덕성의 원리를 찾으려는 치밀한 논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라는 점, 규범에 대한 반성적 사유 없이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교육으로서의 윤리가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거쳐 보편적 도덕 법칙이 무엇인

지를 찾고 실천하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스포츠윤리학의 당위성과 외연은 결국 학문적 연구의 깊이에 의해 획득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성주(2014)는 스포츠윤리 문제의 분석과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틀로서 공리주의, 의무론적 윤리, 계약론적 윤리, 덕윤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윤리이론들이 실제 스포츠상황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2) 칸트의 윤리적 관점에서 스포츠윤리

서경호(2006)는 윤리적 갈등의 양태가 칸트의 윤리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태이터의 양산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칸트의 도덕철학을 통해 스포츠상황에서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스포츠인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주영(2016)은 스포츠에서 윤리적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칸트의 도덕철학 세 가지 명법(가언명법, 정언명법, 초월성)을 토대로 스포츠윤리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였다. 칸트의 도덕철학적 사상인 정언명법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유포된 속임수와 경기력향상을 위한 약물복용, 속임수와 같은 문제는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절대 시도될 수 없는 행동이며, 선수 개인 스스로와 인간관계에서도 수단적 원칙 혹은 목적에만 눈높이를 두고 있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이라 설명하였다.

Kim Me Suk et al.(2018)은 칸트가 ‘만일 우리가 의무에 가장 사소한 예외라도 허용하는 경우, 흔들리면 무용한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주장한 것처럼 심판규정과 윤리강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칸트의 도덕철학을 근거로 댄스스포츠 심판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심판은 주최하는 협회의 대회규정, 심판규정, 윤리강

령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둘째, 심판은 갈등의 상황에서 선을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인간을 목적으로서 대하고, 결코 하나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칸트의 주장처럼 자신의 인격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의 인격에 의해 인간성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넷째, 심판의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김리원(2019)은 칸트의 윤리적 관점으로 스포츠윤리를 분석하여 스포츠의 윤리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밝히고, 스포츠윤리의 엄격성과 당위성의 근거를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덕윤리 관점에서의 스포츠윤리

오현택(2006)은 전통 스포츠윤리학의 한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자 개인의 덕성을 강조하는 덕윤리를 제시하여 스포츠윤리학적 의의를 조명하였다. 또한 덕윤리를 기초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스포츠맨’, ‘용기 있는 스포츠맨’, ‘정직한 스포츠맨’ 등과 같은 규범적인 원칙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성민(2013)은 스포츠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는 준거/규범을 제시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덕을 도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덕윤리는 스포츠윤리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지향(2015)은 매킨타이어의 덕에 대한 논의를 스포츠에 대한 정체성 확립 및 스포츠맨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 틀로 삼게 된다면, 덕윤리가 스포츠현장에서 하나의 윤리적 준거 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정택(2017)은 덕에 기반한 학교 스포츠윤리 교육은 스포츠 또는 체육활동이라는 하나의 문화에 입문하고 향유하는 과정으로서 체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체육교육을 통해 덕을 실천하고 함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동일(2017)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의 해결점이 스포츠윤리교육에 있고, 이러한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덕윤리적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면 개인의 품성과 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의식과 가치관은 다양한 스포츠의 비윤리적 상황에서 습관화되어 언제든지 발현될 수 있도록 체득(體得)되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4) 유학의 관점에서 스포츠윤리

지동철(2007)은 유학윤리를 적용하여 스포츠윤리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유학윤리를 스포츠에 적용하려는 것은 우리 사회의식의 중심이라는 생각과 현재 스포츠윤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보다 실천력을 높이려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전반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학윤리의 적용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현대사회의 부족한 윤리의식을 회복하는 데도 유학윤리가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권오륜 외(2018)는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 유교철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유학이 궁극적으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하는 최고의 실천철학으로서 스포츠윤리학이 추구하는 생각의 윤리학과 행동의 윤리학 목적과 일치한다. 또한 사단(四端)이라는 마음의 계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서양 윤리이론 혹은 실천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스포츠윤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오히려 단(端)의 덕목은 페어플레이나 스포츠맨십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동양적 스포츠윤리로서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5) 그 외

이학준(1998)은 스포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윤리학적 접근방법이 아닌 개인과 사회윤리학적 접근방법의 통합 윤리적 접근방법으로 스포츠의 윤리적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정웅근과 김홍식(2000), 남중웅(2002)의 공통적으로 제시된 의견이다.

김식(2015)의 연구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 기초하여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기존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레비나스의 이론을 토대로 스포츠맨십의 타자윤리적 성격을 구명하고 새로운 스포츠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김소은(2015)의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스포츠윤리 교육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비윤리적인 이슈를 활용하면서, 사례중심학습에 기반한 스포츠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스포츠윤리 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그램 방법적 측면에 있어 중고등학생 선수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호 외(2017)는 최근 10년간 국내 스포츠윤리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도핑, 불평등, 승부조작 등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실질적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스포츠 선수들의 윤리적 행동 규정이나 도덕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스포츠윤리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스포츠윤리에 대한 담론이나 이론윤리학 중 하나의 관점에서 해석, 새로운 스포츠윤리 제안, 스포츠윤리 교육 방향, 스포츠윤리 연구동향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 중 오현택(2006), 김정호(2013), 이승훈(2015), 이지항(2015), 박성주(2019) 등은 스포츠윤리가 응용윤리의 한 분야라고 인식하며, 실천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의 원칙을 토대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윤리 문제와 다양한 접근

윤리 문제에 다양한 접근으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 정의윤리, 심정윤리, 담론윤리 등이 있다. 많은 연구가 하나의 윤리이론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스포츠관련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문제를 의무론과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윤리학 중에서 스포츠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의무론과 공리주의와 실천적 의미로서 대두되고 있는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를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이론으로서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칸트의 의무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윤리학의 과제가 선의지에 대한 탐구이며, 인간의 행위가 의무로부터 행해졌을 경우에만 도덕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이다(두피디아, 2021).

인간이 가진 여러 속성이나 의욕의 대상들에 대해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선한(좋은)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의지의 요소는 결정적인 준거점이 되며, 선하다고 여겨질 만한 많은 대상들을 전적으로 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선)의지는 대상(속성이나 행위 등)의 도덕적 선함에 대한 선결-전제조건 또는 도덕적 평가에 있어서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임미원, 2017: 103).

칸트는 의무에 따른 행위가 단순히 ‘의무에 맞는’ 행위여서는 안 되고,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의무에 맞는’ 행위는 속으로는 그 행위를 전혀 의무로 여기지 않는 데도 단지 우연한 조건으로 인해 그렇게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김석기, 2015: 33). 혹은 다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행위는 무제한적으로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박찬구, 2014: 46).

그리고 칸트의 실천적 명령을 설명하는 데 정언명령(定言命令)과 가언명령(假言命令)으로 나눌 수 있다.

정언명령은 특정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목적이나 의도를 행위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특정 행위 자체를 직접 명령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 또는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행위의 형식과 행위 자체가 도출되어 나오는 원리에 맞추어 표현되어 있다(임미원, 2017: 106).

가언명령이란 인간이 원하는 무언가(목적)에 대해 수단으로서 어떤 가능한 행위가 갖는 실천적 필연성을 보여주는 반면, 정언명령은 행위를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한다(임미원, 2017: 106).

대부분의 행위는 조건적, 즉 가언명령(假言命令)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성격을 띠며, 이러한 도덕적 명령은 그 자체로 좋은, 무조건 좋은 것이며,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최만수, 2018: 14).

칸트가 정언명령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는 이런 정언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어떤 다른 전제조건과도 연관됨 없이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에 따르도록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지를 규정하는 실천적 법칙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이다(임미원, 2017: 106).

2)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제러니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두피디아, 2021).

“어떤 행위가 쾌락을 가져온다면 그 행위는 옳고, 고통을 가져온다면 나쁜 것이다.” 이런 윤리학설을 쾌락주의라 하고 공리주의는 도덕의 원리를 쾌락에서 찾는 쾌락주의를 근대사회의 도덕 원리로 정립한 윤리이다(김정호, 2020: 70).

어떤 도덕적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대안들을 분석하여 비용 대비 최대의 이익을 산출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윤리는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되지 못한다(이정택, 2016: 52).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얻으면 얻을수록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더욱 커지는데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보다 많은 행복의 도출에서 찾는 공리주의는 근대 이후 입법을 포함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공리주의 스포츠의 도덕원리를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많은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김정호, 2020: 70).

공리주의는 원리,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 행위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공리주의의 원리는 <표 4>와 같이 결과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이며, 공리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는 <그림 6>과 같다.

표 4. 공리주의의 원리

결과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론이란 어떤 행위를 함으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혹은 모든 사람이 그 행위를 할 경우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는 주장 - 즉,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의 좋음과 나쁨에 달려있음
유용성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의 원리란 만일 어떤 행위가 유용하다면 그 행위는 옳다는 것으로 유용성은 언제나 구체적인 목적을 갖음 -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유용성의 원리는 바람직하거나 좋은 목적, 즉 본래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
공평성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 즉 한 사람의 쾌락은 다른 사람의 쾌락과 동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 - 각 개인의 행복은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비해 특별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

출처: 김영진 역(2003), 김정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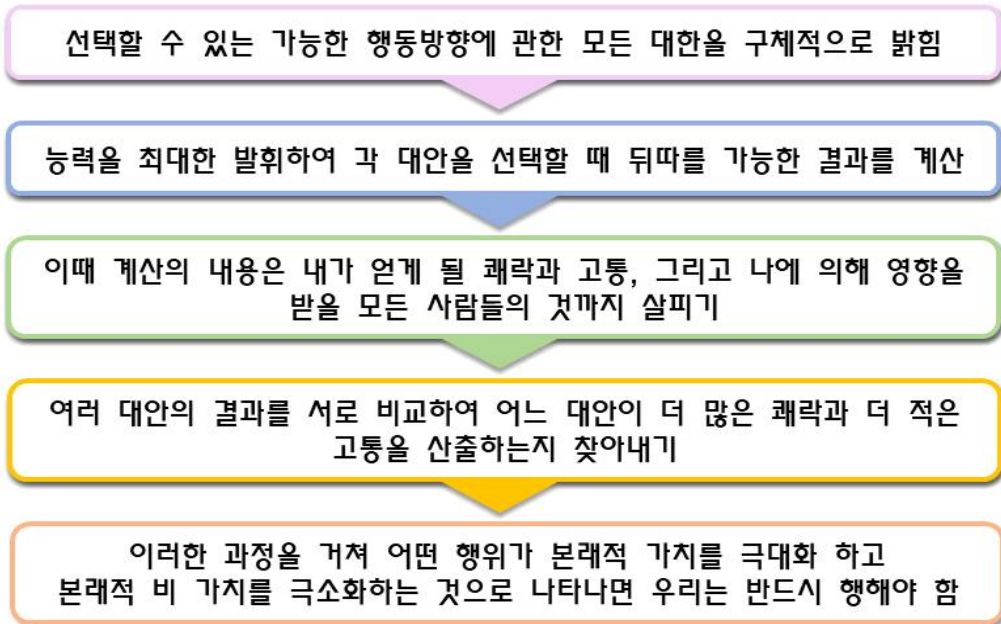


그림 6. 공리주의의 의사결정 절차(출처: 김영진 역, 2003)

공리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행위 공리주의(act-utilitarianism)’와 ‘규칙 공리주의(rule-utilitarianism)’로 구분 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먼저 행위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초기의 공리주의로서, 그 어떤 미심쩍은 행위라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인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에 공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최대 행복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하여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공리주의라 할 수 있다(이승훈, 2015: 89).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행복이 크면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면 악한 행위라 판단한다.

공리주의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지만, 최고선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었고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자

신의 행복을 희생하거나 양보해야 한다는 사회윤리로 발전한다(배용준, 2011: 278). 이 원리가 개인의 행복을 양보하거나 희생하더라도 최대행복의 사회를 실현하는 윤리이론이 될 수 있다면 공리주의 윤리이론은 사회적 실천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배용준, 2011: 279).

3) 매킨타이어의 덕윤리

입법자 없는 법, 행위자 없는 행위는 근대윤리학이 놓치고 있는 한계로, 덕윤리는 그 한계의 자리에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과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채움으로서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앤스콤(Gertrude Elizabeth Margaret Anscombe 1919~2001)의 주장이래 덕윤리는 매킨타이어(Alasdair Chalmers MacIntyre, 1929~), 샌델(Michael J. Sandel, 1953~) 등에 의해 현대의 새로운 윤리학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정효, 2020: 103).

기존에는 윤리적 논의를 할 때 전통윤리학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였으나, 해석의 한계를 느껴 제3의 대안으로 덕윤리를 재조명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덕윤리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덕윤리가 주목받게 된 하나의 계기는 윤리 문제가 빈발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인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박찬구, 2004: 6).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규칙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행위가 타당한 규칙들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무엇이 의무이고(obligatory) 무엇이 허용될 수 있고(permissible) 무엇이 옳고 그른지(right or wrong)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덕윤리학은 무엇이 훌륭하고(noble) 무엇이 칭찬할만하고(admirable) 무엇이 좋고 나쁜지(good or bad)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점이다(박찬구, 2004: 8).

덕윤리는 선한 성향을 가지기를 노력하고 올바른 도덕감정을 키워 이런 도덕적인 성품이 오랜 시간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덕은 올바른 이유와 감정으로부터 결정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덕스러운 성향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언제나 올바른 행위를 하고 싶어 하고 또 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성향을 지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도덕의 본성은 다양하며 언제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덕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규칙이 해답으로서 제시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두피디아, 2020).

덕윤리는 행위 중심의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행위자 중심인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는 덕윤리가 추상적 원리보다는 구체적인 사람의 덕성에 법적인 의무보다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남경부, 2008: 16). 이런 의미에서 길리건과 나딩스로 대표되는 배려윤리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윤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덕원리를 찾기에 앞서 배려당사자의 상황과 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살펴야 한다(남경부, 2008: 16-17).

규범윤리에서 중시하는 행위 자체만을 보았을 때, 한 번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 내면의 덕을 자리잡게 된다는 것이며, 내면의 덕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성품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덕윤리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이승훈, 2014: 84).

이는 절제, 관용, 인내, 용기 등의 덕목이 무엇인지는 실천하기 전에는 결코 알지 못하며 실천한 후에야 그 실체가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듯이 옳은 행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는 것으로 덕윤리에서는 ‘실천’을 매우 강조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점은 도덕적 ‘덕’을 기르는데 반드시 교육이 필수적임을 드러낸다(조가람,

2020: 299).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행위자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에서 비롯하며, 이런 까닭에 스포츠윤리는 행위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행위자의 덕성을 계발하고 인격 수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야 하므로, 스포츠를 통해 보다 나은 인격체를 지향하는 것은 덕윤리의 큰 장점이자 스포츠윤리의 궁극적 가능성이기도 하다(김정효, 2020: 102).

4) 나딩스의 배려윤리

배려윤리의 등장은 1980년대 중반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1936~)과 교육이자 철학자인 넬 나딩스(Nel Noddings, 1929~)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남성 편견으로 전통적인 도덕적 접근 방식을 비난하고 자유인권이론의 '정의적 관점'에 대한 정당한 대안으로 '배려의 목소리'를 주장하였다. 배려윤리를 여성적이고 페미니스트 윤리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물과 환경, 생명윤리, 공공정책을 포함한 많은 도덕적 문제와 윤리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길리건과 나딩스의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기존 발달 심리학상 남성 중심성에 대한 비판에 근거해서 정의의 도덕성에 대비되는 새로운 도덕성 이론으로 규정하고 그 도덕성의 형성 및 발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딩스는 길리건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배려윤리를 하나의 도덕성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의 보편적인 윤리로서 주장하고 있다(박병춘, 2002: 19).

배려윤리는 정의(justice)의 남성 중심적인 도덕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덕적인 지향으로 간주하며, Gilligan(1982)은 Kohlberg가 제기한 도덕성이 정의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이해하는 남성의 윤리라고 지적하면서 여

성은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즉 배려, 책임, 관계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이해한다고 하였다(고미숙, 2004: 38).

현재 배려에 대한 논의들은 나딩스의 배려 의미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정의하고, 배려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문경희, 2011; 서희영, 2012; 양은영, 2011; 이세영, 2012, 정근영·조춘환·김수정, 2020).

배려윤리는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윤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덕원리를 찾기에 앞서 배려당사자의 상황과 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살펴야 한다. 또한 자연스런 감정을 중시하고, 배려의 차등적 적용 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 배려윤리의 특징이기도 하다(박찬구, 2016: 149-150). 즉, 배려윤리는 여성과 남성, 자아와 타자 모두를 위한 윤리이며,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이 내포된 실천윤리이고,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 윤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미숙, 2004: 51).

고미숙(2004)이 말하는 배려윤리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배려는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표 5. 배려윤리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인지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하는 자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배려하는 자는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상에게 배려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정의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는 타자에 대한 헌신이고 성향이며 태도 - 우리의 최선의 자아와 관계의 표상으로 간주하는 배려를 하고 배려를 받았던 기억 윤리적인 이상을 이끌어내는 것
행동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는 실천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책임, 헌신, 애정을 토대로 사고가 포함 - 배려하는 자는 타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타자가 느끼는 것을 가능한 한 근접하게 느끼게 될 때, 타자를 위해 행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이는 Tronto(1993: 105-108)가 말한 배려가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4가지 분리되지만 상호 관련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고미숙(2004: 52)이 제안한 배려모델에 과정 단계 내용은 <그림 7>⁸⁾과 같다.

Tronto(1993)는 배려단계가 배려의 필요에 대한 인식 단계(caring about)-책임을 지는 단계(taking care of)-배려하기 단계(care-giving)-배려의 수용 단계(care-receivin)로 이루어지며 수용단계는 배려가 실질적으로 충족이 되었는지 또는 배려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며, 배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려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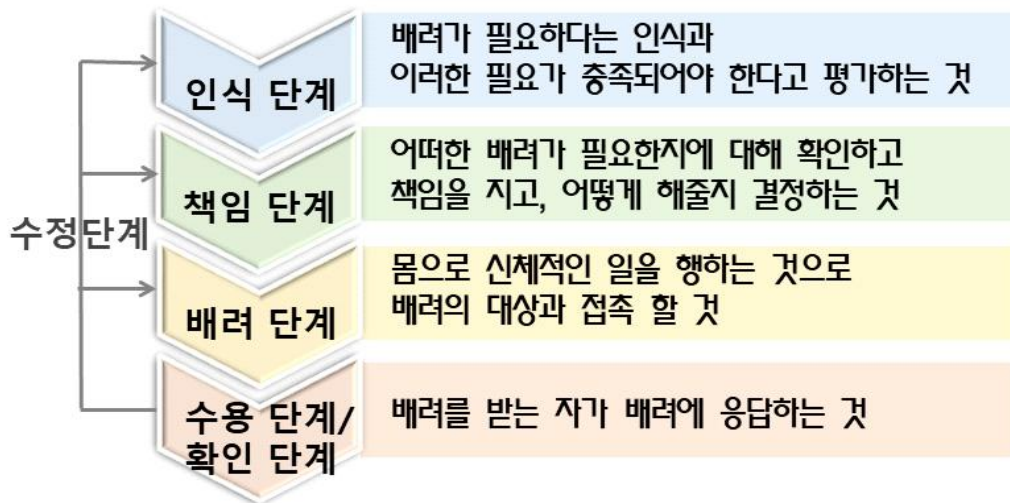


그림 7. 배려 모델 과정의 단계

배려윤리는 실제 경험을 통해 실제적 판단력과 같은 ‘실천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덕윤리와 유사한점이 많으나, 덕윤리와 배려윤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관계’에 있다(조가람, 2020: 300).

배려윤리는 이처럼 실제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하게

8) 본 연구자는 고미숙(2004: 52)가 제안한 배려모델 4단계를 Tronto(1993)가 이야기한 확인 단계와 수정단계까지 포함하여 재구성하였다.

강화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배려는 단순히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공감, 관심, 애정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대된다(김정효, 2020: 107). 이는 근육경련을 일으킨 상대 선수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행위도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심에서 비롯하는 것, 일반적으로 동료의 욕구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하는 선수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살피고 대응하는 능력, 과도한 승리의 세레모니를 자제하거나 패배한 팀에게 존경을 표하는 스포츠맨십은 배려윤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가치인 희생, 양보, 친절, 존중, 신뢰, 화합 등은 배려윤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겹친다(김정효, 2020: 108).

이렇듯 스포츠상황에서 선수와 선수, 선수와 지도자, 선수와 심판 등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배려윤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5) 요나스의 책임윤리

리처드 니버(Helmut Richard Niebuhr, 1894~1962), 한스 요나스(Hans Jonas, 1903~1993),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1906~1995)를 통해 시도된 새로운 윤리학을 ‘책임의 윤리학’이라 부를 수 있다(강영안, 2004: 51).

책임윤리는 선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윤리설로,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한 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대의 여러 실천윤리 분야의 공통 주제로 ‘책임’을 들고 있으며, 책임의 대상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적절한 책임

을 규명하고, 그에 적절한 실현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변순용, 2019: 42-43).

전통 윤리학에 있어 책임 개념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책임만을 의미하였으나, 새로운 윤리학의 책임 개념은 인과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위를 예견하는 책임까지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예견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책임의 범위 확장을 가져온다(정결, 2018: 191).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낳은 다양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갖는 여러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민혁, 2020: 123). 또 현대의 과학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와 결과가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전통 윤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미래 세대의 실존, 그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이진우 역, 2020: 33-36).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윤리적 공백’이라는 말로 이를 설명하였다. 윤리적 공백이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차이를 말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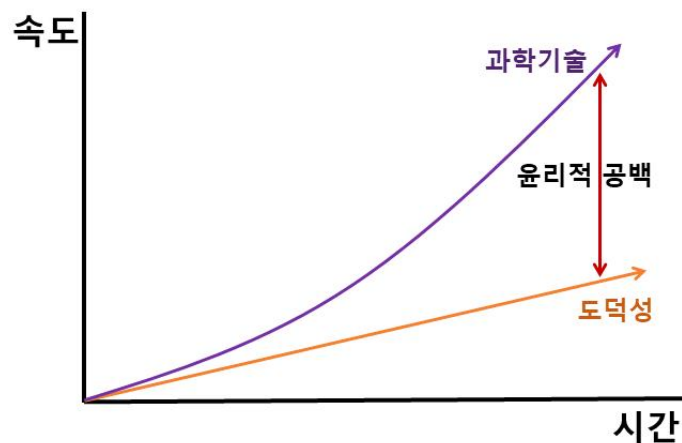


그림 8. 윤리적 공백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가 편리해지는 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윤리적 딜레마)가 나올 수가 있다. 이처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규범 사이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에 있어 요나스는 우리의 행위를 규제할 새로운 윤리는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긍정적인 예측이 아닌 부정적인 예측으로 ‘공포의 발견술’을 말하였다.

“과학기술 문명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언젠가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고, 결국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여 행위 해야 한다.” -한스 요나스-

이 개념은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사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김은철·송성수, 2012: 77), 우리 행위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상상하고 행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적인 결과만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게 되므로 부정적인 결과까지 예측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의 상황까지 예측하여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게 될 행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까지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Ⅲ.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과 윤리

Ⅲ장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스포츠 영역에서의 행위주체에 따른 문제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스포츠의 행위 주체자인 선수, 지도자, 심판, 구단 등 개인의 문제들도 있지만 이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미디어(포털/SNS)에 노출된 다양한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빙상계 스포츠 미투 ‘조재범 사건’(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최근 학교폭력(학폭) 논란까지 일으킨 배구 ‘쌍둥이자매 사건’(2021년 3월 31일)까지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 ‘스포츠윤리’ 검색어를 설정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TAXTOM)을 이용하였으며, 웹 환경 포털/SNS(웹문서, 블로그, 카페, 뉴스, 지식인, 페이스북 등)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수집, 정제하여 매트릭스 데이터 생성까지 처리하였다. 아울러 시각화 작업은 워드클라우드, N-GRAM 네트워크와 매트릭스 네트워크 상호 연결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문제유형 분석을 통해 ‘스포츠에서는 관계간의 문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정도까지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후속연구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며, 자칫 본 연구가 갖는 핵심 주제(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 도출된 자료는 IV장에서 문제해석을 위한 주제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론윤리학을 기반으로 응용윤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칙들을 토대로 스포츠윤리의 원칙을 구성하여 문제 해석을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

1) 빈도분석 결과

미디어에 나타난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을 산출하기 위해 병상계 스포츠 미투 ‘조재범 사건’(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최근 학폭논란까지 일으킨 배구 ‘쌍둥이자매 사건’(2021년 3월 31일)를 기점으로 도출된 빈도분석 결과(총 9,932개), ‘스포츠’(12,562)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윤리’(4,177)가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윤리센터’, ‘인권’, ‘폭력’, ‘보호’, ‘신고’, ‘비리’, ‘근절’ 등이 상위 빈도(수)로 도출되었다. 키워드별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20개의 상위 키워드의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빈도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빈도(수)
1	스포츠	12,562	11	폭력	962
2	윤리	4,177	12	학교	751
3	윤리센터	3,151	12	체육계	714
4	체육	2,788	12	보호	625
5	생활	1,384	15	사회	607
6	교육	1,335	16	신고	598
7	실기	1,313	17	비리	506
8	인권	1,276	18	지도자	549
9	선수	1,084	19	근절	539
10	운동	1,006	20	문화체육관광부	514

2)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미디어에 나타난 스포츠 영역에서의 문제유형 핵심키워드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스포츠’ 키워드가 가장 크고 진하게 표현되었으며, ‘윤리센터’, ‘선수’, ‘인권’, ‘교육’, ‘폭력’, ‘보호’, ‘신고’, ‘비리’, ‘근절’ 등 출현빈도 지수에 따라 키워드가 다양한 크기와 색의 진하기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3) N-GRAM 네트워크와 매트릭스 분석 결과

빙상계 스포츠 미투 ‘조재범 사건’(2019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최근 학폭 논란까지 일으킨 배구 ‘쌍둥이자매 사건’(2021년 3월 31일)를 기점으로 N-GRAM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스포츠’, ‘인권’, ‘윤리센터’의 키워드간 관계와 구조적 배열 연결에 높은 빈도(수)가 나타났으며, <그림 10>에서 나타는 바와 같이 노드와 라인의 연결선이 확연히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구조적 연결성을 나타낸 키워드는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 스포츠-지도, 인권-보호, 학교-폭력, 윤리센터-설립, 인권-침해 등 키워드 간 배열과 패턴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N-GRAM 빈도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연결성	키워드	빈도(수)
1	스포츠	→	윤리센터	3,103
2	스포츠	→	윤리	2,047
3	스포츠	→	지도	1,246
4	생활	→	스포츠	775
5	인권	→	보호	434
6	학교	→	폭력	375
7	윤리센터	→	설립	344
8	인권	→	침해	337
9	스포츠	→	인권	323
10	윤리	→	교육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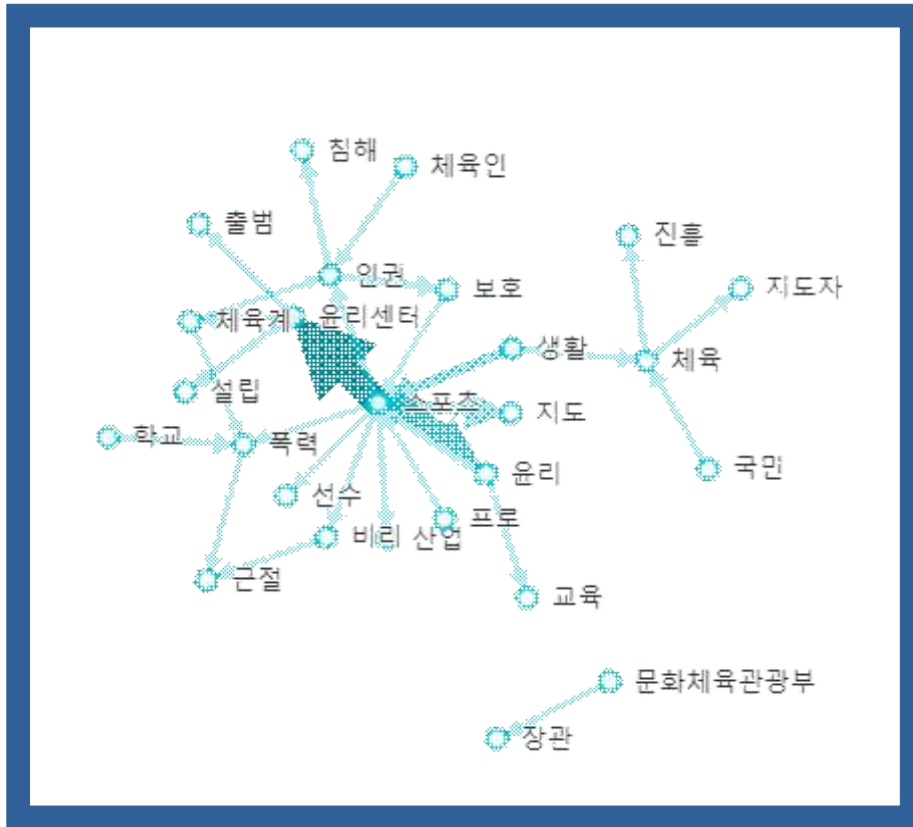


그림 10. N-GRAM 네트워크 분석 결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추출된 키워드들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30개의 키워드를 배열하여 상호 연결망 매트릭스 분석 결과, 노드의 연결망이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한 상위 키워드 ‘스포츠’, ‘윤리센터’, ‘인권’, ‘보호’, ‘침해’, ‘학교’, ‘폭력’의 노드에는 라인(선)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연결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노드에 상호 다양한 라인(선)으로 연결이 형성되어서 모든 키워드가 연결망을 이루어 상호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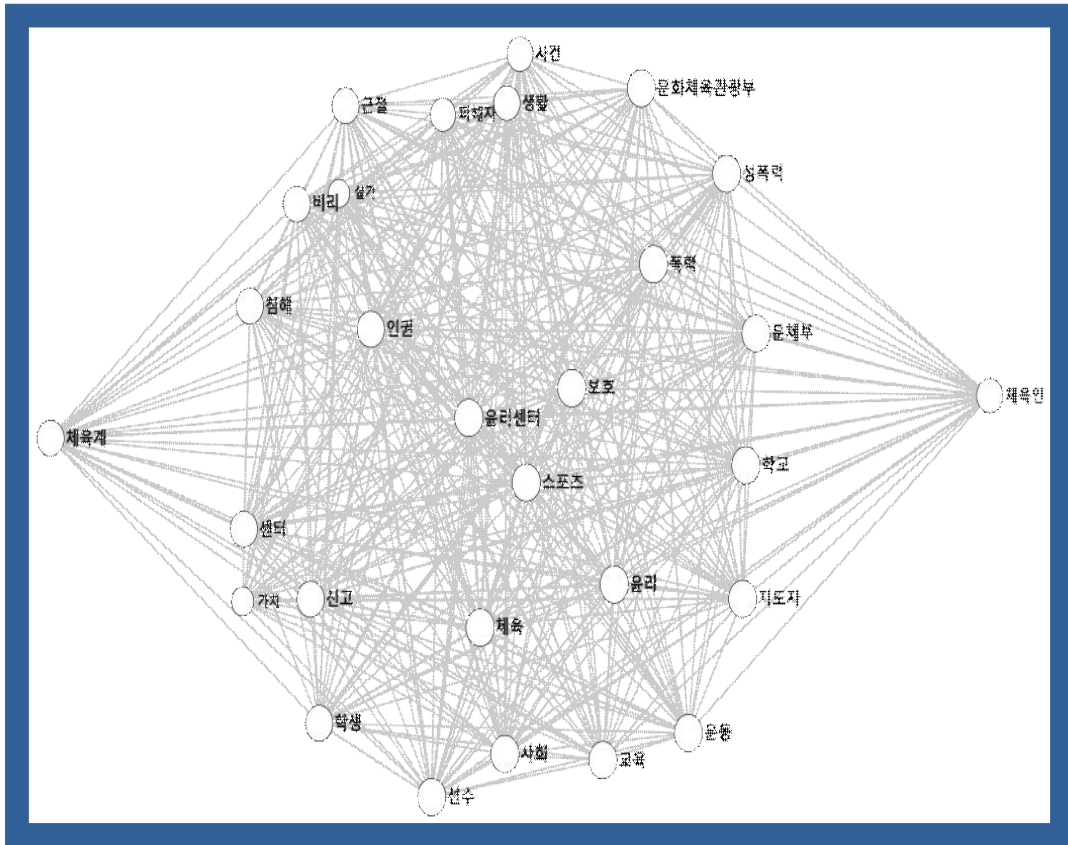


그림 11. 매트릭스 차트

2. 응용윤리와 스포츠윤리 원칙

스포츠윤리의 원칙을 구안하기 위해 응용윤리별 다루어지는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윤리의 원칙

생명윤리는 생명의료윤리, 의료윤리라 하며, 과학기술과 인간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그 윤리를 묻는 분야이다. 유전자조작이나 세포융합 등 생명과학 혹은 생물공학(biotechnology)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생명관(生命觀)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근래에는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위키배움터, 2021).

예를 들어 인간복제 찬반논란에 대해 철학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법률적 접근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철학적 접근을 <표 8>과 같이 입장에서 다양한 접근으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가 있다.

표 8. 인간복제 찬반논란에 대한 철학적 접근

접근방법	입장
칸트의 접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인정받아야 함
도가사상의 접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
유교사상의 접근	인간생명과 인간관계에 대한 지배적 도덕관념은 인간애에 근거한 관계적 개인이고 인간애는 가족주의적 관점을 재구성함
페미니즘적 접근	페미니스트들은 연구용 배아복제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상업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

출처: 위키배움터(2021)

생명윤리를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로 나눌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는 생명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와 치료를 하는 직역에 대한 윤리적 문제, 일종의 전문직 윤리,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생겨난 여러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생명윤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바람직한 접근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의 요청과 함께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숙고한 보편윤리를 말한다(김현철, 2010: 501).

생명윤리학의 이론적 측면에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강조된 계기로 비참(Tom Lamar Beauchamp, 1939~)과 칠드레스(James Franklin Childress, 1940~)의 공저인 1979년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노라 오닐(Onora O’Neill, 1941~)은 비참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이 여러 차례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이 분야의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비참과 칠드레스의 책은 생명윤리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아울러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생명윤리학에서 명성을 얻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Onora O’Neill, 2002: 34). 비참과 칠드레스의 4가지 원칙 <표 9>인 자율성 존중, 해악금지, 선행, 정의는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 있고 의료윤리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며, 현대 윤리원칙의 바탕이 되어오고 있다.

표 9. 비침과 칠드레스의 4가지 원칙

원칙	내용
자율성 존중	자율과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 자기결정권의 원칙으로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할 때 환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
해악금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불가해의 원칙
선행	환자를 돕고 배려하여 환자의 건강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라는 원칙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
정의	의료혜택이나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차별 없는 치료를 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출처: 위키배움터(2021)

2) 정보윤리의 원칙

정보사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명암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여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 유덕한 인간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리처드 세버슨(Richard J, Severson)은 자신의 저서 ‘The Principles of Information Ethics⁹⁾’에서 몇 년 동안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야기되는 비도덕적 불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보윤리학의 근본윤리를 비침과 칠드레스의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을 참고하여 ①지적 재산권 존중 ②프라이버시 존중 ③공정한 표시 ④해악금지 정립하였다.

우리는 이 4가지 원칙이야말로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도덕적 딜레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도덕적 딜레마는 근본적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에서 오는 것인데, 윤리학의 원칙은 이러한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9) 추병완, 류지한 역(2000) / 리처드 세버슨. 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바꾸어줄 것이기 때문이다(이을상, 2000: 12).

이외 리차드 스피넬로(Richard A. Spinello)와 국내 학자 추병완(Chu Beong Wan, 1963~)이 정립한 정보윤리 원칙은 <표 10>과 같다. 세 학자는 원칙의 용어가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포되어진 의미는 비슷하다. 이 4가지를 지키면 사이버 공간은 자아를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표 10. 학자별 정보윤리 원칙

세버슨	스피넬로	추병완
지적 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시 해약금지	자율성 선행 정의 해약금지	존중 책임 정의 해약금지

3) 직업윤리의 원칙

직업윤리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윤리를 직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행위규범을 뜻한다(신문희, 2012: 11). 이러한 직업윤리라는 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직업관, 직업의식, 근로윤리 등이 있으며,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직업윤리는 직업일반의 윤리와 직업별 윤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모든 직업조직이나 직업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직업윤리를 말한다(이영배, 2001: 17).

직업윤리는 철학적·심리학적·사회학적 등의 이론적 기초에 의해 그 자

체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이론적 기초와 더불어 교육학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김기홍·이지연·정윤경, 1999: 43).

직업윤리가 하나의 교육적인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 학교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태이다(김기홍 외, 1999: 43). 지식기반의 탈산업사회의 빠른 변동은 기존의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이에 따른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직업윤리와 도덕교육에 대한 개인, 사회 단체나 국가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져 이에 따라 획일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가치나 윤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와 윤리에 대한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중시하게 되었다(김기홍 외, 1999: 43).

모든 사람은 직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직업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에는 사회시스템 전체의 관계를 규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통보편적 일반윤리’와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각자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단체 등 특정 조직체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효율을 도모하는 ‘특수윤리’가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59). 또 만일 ‘모든 직업인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 일반의 윤리’일 것이며, 공직자나 의사, 교육자 등 직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윤리는 ‘직업별 윤리’라고 할 수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59).

직업윤리의 일반적 덕목에는 ①소명의식 ②천직의식 ③직분의식 ④책임의식 ⑤전문가의식 ⑥봉사의식 등이 있으며, 한국인들은 중요한 직업윤리 덕목으로 ①책임감 ②성실함 ③정직함 ④신뢰성 ⑤창의성 ⑥협조성 ⑦칭림함 순으로 강조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59).

다양한 직업환경의 특성상 모든 직업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윤리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 이를 직업윤리의 5대 원칙이라고 하며,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

원칙	내용
객관성의 원칙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원칙
고객중심의 원칙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중심, 실천중심으로 일하는 원칙
전문성의 원칙	자기업무에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능력을 연마하는 것
정직과 신용의 원칙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는 것
공정경쟁의 원칙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4) 응용윤리에 따른 스포츠윤리 원칙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기 위해 앞서 기반이 되는 이론윤리학인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 살펴보았으며, 응용윤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리 중 윤리원칙에 기반이 되는 생명(의료)윤리와 정보윤리, 직업윤리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스포츠윤리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른 응용윤리 영역에서 논의 결과를 충분히 참작하되, 스포츠윤리영역에서 구체적인 특성이 반영되는 원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응용윤리 분야에서 적용한 원칙을 토대로 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윤리 원칙’을 <그림 12>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내용은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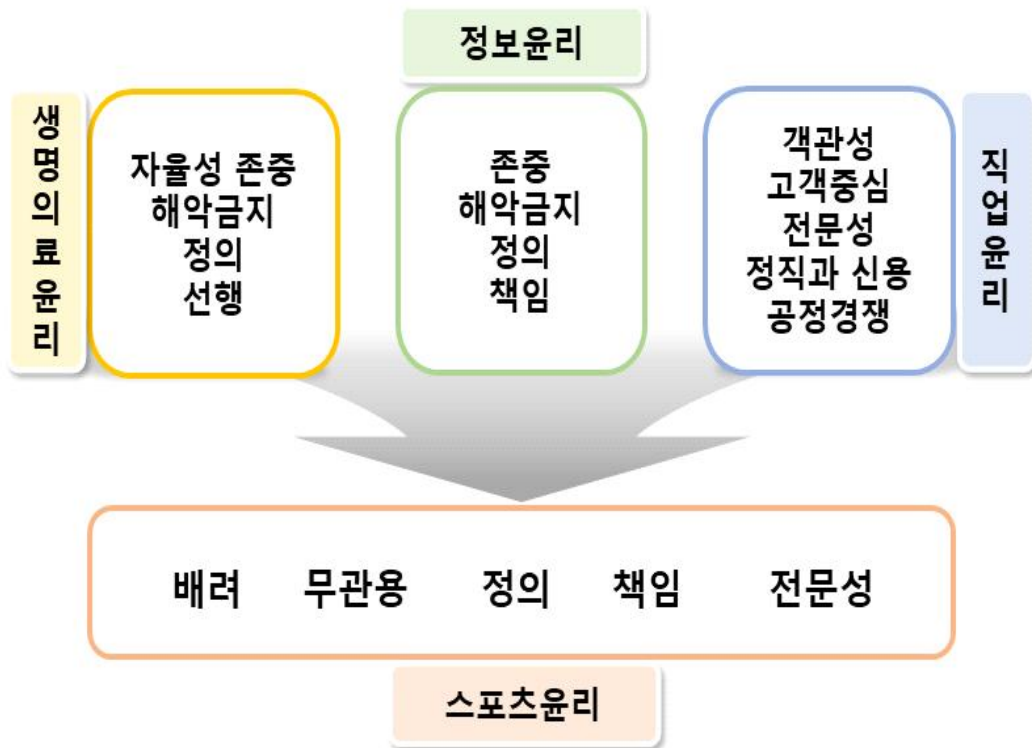


그림 12. 응용윤리 원칙과 스포츠윤리 원칙

표 12. 스포츠윤리 원칙 내용

원리	요약	내용
배려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개인의 자율성 존중 - 상호 간에 배려 	<p>지도자(교사)는 선수(학생)에게 선수(학생)는 지도자(교사)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하지 않고 둘 사이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p>
무관용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것 - 폭력, 폭행에 대해 어떠한 사유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 	<p>선수에게 해악(해로움과 악행)을 입히거나 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됨. 지도자는 선수가 비록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악을 입혀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언어, 성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됨.</p>
정의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경쟁(정정당당) - 적극적인 페어플레이 정신 - 차별금지, 기회균등의 보장 - 방관, 묵인, 은폐를 하지 말아야 함 	<p>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며, 어느 특정선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낮은 선수가 있더라도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되도록 하여야 함.</p> <p>또 비윤리적인 문제 있어 방관, 묵인, 은폐를 해서는 안 됨.</p>
책임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p>선수, 지도자, 감독 등은 공인의 성격인 사회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의 책임을 가져야 함.</p>
전문성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에 대한 전문성 - 규칙에 대한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함 	<p>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가(지도자, 심판 등)로서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고 본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여야 함.</p>

배려의 원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상호간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스포츠계의 수직적 구조에서 일방적인 한 방향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쌍방향으로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한다.

무관용의 원리는 생명윤리에 해악금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악금지 보다는 더 강한 원리이다. 해악금지는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더 나아가 폭력과 폭행에서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언어, 성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정의의 원리는 공정성과 공평성을 의미한다. 공정성은 편파적이지 않은 공평성과 합리성을 뜻하며, 옳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이 전제되어 있는 정의의 중심개념이기도 하다(임석원, 2017: 201). 공정성은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평성은 특정 선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

그리고 정의의 원리에서 비윤리적인 문제에 있어 알고도 모르는 척 방관하는 태도, 묵인,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책임의 원리는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스포츠 구성원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파급력 또한 일반인과 크게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과 행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전문성의 원리는 스포츠가 직업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기에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가로서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수행하여 본분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

수는 경기에 대한 전문성, 지도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심판은 규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과 사명감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인간 완성(human fulfilling) 혹은 인간다움(humanity)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도덕의 최고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즉, 스포츠윤리 원칙은 궁극적 선(善)인 인간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통해 그에 근거해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은 <표 13>과 같다.

문제해석을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은 스포츠윤리의 쟁점 사례 제시, 윤리적 쟁점과 해결방안, 교육적 의미 등의 구조를 가진 학습지가 산출이 될 수 있으며,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사례에 대해 파악한다. 문제에 대한 대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와 사유하기를 통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장을 열어주고,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에 비추어 문제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3. 문제해석을 위한 구조적 인식의 틀

항목	내용	
사례	사례를 기승전결에 따라 제시	
분석 관점	대상관계	문제에 연관된 대상
	문제유형	문제 유형(단일적 문제, 복합적 문제)
	사유하기	문제에 대한 입장
	윤리적 관점	스포츠윤리의 원칙에 비추어 분석
	기타	윤리적 관점 외에 법적, 생리학적, 사회적 파장 등을 기술

IV. 스포츠윤리 원칙에 따른 문제분석과

응용윤리적 접근

IV장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에 따른 유형 해석과 응용윤리적 접근을 위해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 대표적 사례와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위해 구조적 인식의 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III장에서 살펴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연구의 제한이 있다.

채승일 외(2014)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비윤리적 행위를 승부조작 및 경기조작 행위, 폭력 및 폭행, 도핑, 반칙행위, 횡령, 오심과 편파판정 6가지로 제시하였으며, 2015년 개정된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교과목인 ‘스포츠윤리’는 경쟁과 페어플레이, 불평등, 환경과 동물윤리, 폭력, 도핑, 인권, 조직과 윤리 문제로 나누었다. 이 중에 본 연구에서는 폭력과 폭행, 승부조작, 오심과 편파판정, 도핑 문제와 정보사회 발달로 스포츠 영역에서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관련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문제유형에 있어 단일적 문제유형과 복합적 문제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에 있어서는 A와 B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A-B-C, A-B-C-D 등 여러 관계와 얽혀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조적 인식의 틀과 스포츠윤리 원칙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이는 어떤 사건이든 설정한 틀과 윤리원칙으로, 누구나 윤리 문제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여 윤리의식과 윤리의 추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고자 한다.

1. 폭력과 폭행

‘스포츠 폭력’은 운동선수, 감독, 심판, 단체임원, 흥행주 등의 ‘스포츠 관계인’이나 관중 등의 ‘일반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수인이, 운동경기나 훈련과정 중이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최병문, 2009: 275), 폭력과 폭행에 대한 사건은 스포츠계에서 고질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체벌¹⁰⁾의 개념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도자가 선수에게 체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체벌의 개념이 점점 폭력과 폭행으로 성(性)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까지 기존의 교육으로서, 훈련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다른 의미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김혁(2016)의 「스포츠 폭력 실태와 개선」 연구에서는 스포츠폭력의 종목은 신체접촉 및 공격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종목일수록 스포츠폭력의 성향이 높다는 점과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종목일수록 스포츠폭력의 성향이 높다고 나타났으며, 폭력의 원인은 스포츠계만의 독특한 문화인 고질적 병폐(훈육), 승리지상주의, 스포츠관중들의 폭력적인 사회통제 및 안전장치 미흡, 군중심리, 스포츠 지도자의 폭력 이유인 훈련불성실, 왜곡된 성인식(육정) 순으로 나타났다(김혁, 2016: 53).

또한 스포츠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신고나 고소를 하여 보복·2차 피해·불이익, 숨방망이 처벌, 체육계의 온정주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따돌림순으로 이러한 근거로 체육계는 스포츠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을 수십 년째 반복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김혁, 2016: 54).

10)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표적인 체벌은 달초(撻楚) 또는 초달이라고 하는 회초리 매로써, 서당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었으며, 가정에서도 자녀의 잘잘못을 일깨워 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존재하여 왔다(두피디아, 2021).

사례 1-1. 폭력·폭행과 방관자

항목	내용	
사례	<p>프로배구 남자부 L 감독이 20일 과거 P 선수를 때린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 며 올 시즌 남은 경기에 출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L 감독은 2009년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P 선수를 구타해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2011년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위원으로 배구계에 돌아왔고, KK대 감독을 거쳐 올 시즌을 앞두고 K 구단 감독으로 선임됐다.</p> <p>2009년 국가대표시절 코치로 있던 L 감독이 P 선수 눈빛이 맘에 안 든다고 폭행하였고, 부당하다 느낀 P 선수 당시 감독이었던 K 에게 찾아갔지만 달래기만 할 뿐 별도 조치 없었다. 이후 협회에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말자며 협회가 쉬쉬하였다.¹¹⁾</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지도자(코치) → 선수 / 방관자: 감독, 협회
	문제유형	지도자의 폭행 + 감독과 협회의 방임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별도 조치 없이 방관한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언론에 알릴 일이 아니라며,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협회의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가 물러 난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복귀해도 되는 것인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치가 한 행동에 있어 폭행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무관용의 원칙’ 에 위반 - 선수 폭행에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감독과 협회는 ‘정의의 원칙’ 에 위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코치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2년 후 지도자 복귀) - 폭행관련법령 : 형법 제260조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11) 송원형(2021.02.20). “박철우 눈빛 마음에 안든다” 이상열은 폭행했고 김호철은 눈감았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20/M2PX7JQARBDI5EL6Y5O4DZK6UQ/>

사례 1-2. 감독의 성폭행과 구단의 은폐

항목	내용
사례	<p>여자실업축구 K구단 선수들은 감독의 성폭행 사건이 있어 감독이 퇴출 당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구단이 선수단 전원에게 ‘사건에 대해 그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겠다’ 는 각서까지 받아냈다는 것이다. 각서에는 ‘만일 이 사건을 발설할 경우 팀에서 나간다’ 는 조항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²⁾</p> <p>여자실업축구 K구단이 지난해 성폭력 사건으로 퇴출한 H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전력을 알고도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H 전 감독은 여자실업축구 WK리그 순위 경쟁이 한창이던 작년 9월 돌연 사라졌고, 계약 해지 사유가 선수단 소속의 여직원을 성추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구단이 하 감독을 선임하기 1년 전 성추행으로 해임된 사실을 알고도 채용 계약을 했다는 점이다.¹³⁾</p>
분석 관점	<p>대상관계 감독 → 선수 ← 구단</p>
	<p>문제유형 감독의 성폭행 + 구단의 은폐 + 구단의 채용비리</p>
	<p>사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단에서 성추행 사실을 감춘다면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자 아닌가? - 감독의 능력이 출중하면 성추행 이력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를 택한 구단은 올바른 선택한 것인가?
	<p>윤리적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이 한 행동에 있어 폭행은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무관용의 원칙’ 에 위반 - 선수 폭행에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감독과 협회는 ‘정의의 원칙’ 에 위반 - 성추행 이력을 알고도 채용한 구단은 ‘책임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에 위반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축구협회가 H감독 제명 - www.sexoffender.go.kr 성범죄 알림e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 	

12) 김기범(2019.01.23.). 한국수력원자력 여자 축구팀 ‘경주한수원’ 성폭행 사건, 진실은 어디에?. 시사오늘, 시사ON.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69>

<사례 1-1>은 사건의 시작은 대표팀 코치-선수의 관계로 훈련 중 선수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고, 그 사건을 감독과 협회에 알렸지만, 오히려 문제를 감추려고 하여 해당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기자회견 당시 폭력을 당한 얼굴과 배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언론의 폭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한체육회는 지도자를 ‘영구 퇴출’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당 배구협회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건에 대해 잊혀질 때쯤 자격정지를 해제하고 지도자로 다시 활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폭력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사유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스포츠 윤리 원칙에서 ‘무관용의 원칙’에 해당한다. 폭력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자를 징계한 협회에 대해 생각해보자. ‘영구제명’과 ‘무기한 자격정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 지도자는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징계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도자로 복귀한다. 이는 폭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스포츠계는 폭력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폭력문제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다면, ‘옛날에는 다 그랬다’라는 관행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스포츠계 안에 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한 폭력이지만, 스포츠계는 훈련에 있어 교육을 목적으로 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체벌과 폭력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해야지만 되는 것인가?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감독과 협회는 제2의 가해자가 아닌가? 폭력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등 의문이 생긴다.

<사례 1-2>는 H 감독이 성추행 사실로 해임을 당했고 얼마 있지 않아

13) 이동철(2019.01.23.). 女축구 한수원, 하금진 전 감독 성희롱 해임 사실 알고도 선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2157954007?section=search>

다른 구단에 임용이 되었지만 임용된 구단의 A 선수를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하여 다시 해임을 당하고 뒤늦게 축구협회가 H 감독을 영구 제명한 사건이다.

성추행, 성폭력 모두 폭력에 해당하므로, 감독은 스포츠윤리 원칙에서 ‘무관용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 <사례 1-1>처럼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사례 1-2>는 성폭력을 한 감독의 문제도 크지만 성추행의 이력이 있는 지도자를 임용하고, 사건 발생 시 선수들에게 각서까지 받으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구단도 큰 문제이다. 이 사건으로 문제 발생 시 개인에 대한 징계만이 아닌 구단에게도 징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구단, 협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기관이다. 구단은 사업성과 연결되어 있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추행 이력이 있는 것을 알고도 지도자를 임용하여 문제가 되풀이 되게 원인 제공을 한 구단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 또 이런 사건 발생시 구단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며, 구단이 성추행 이력이 있는 지도자를 채용한 사실을 알고 축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등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를 주축으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통적 징계기준에서 더 나아가 종목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징계내용을 명시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그리고 두 사례에서 가해자는 행위 주체자인 지도자(감독-코치)뿐만 아니라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감독, 구단, 협회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감독과 기관(구단, 협회)의 복합적 문제이며, 방임과 은폐는 제2의 가해자이자 또 다른 무서운 폭행이다.

2. 승부조작과 공정성

승부조작 행위는 승부를 점칠 수 없는 스포츠의 역동성, 규칙을 지키는 페어플레이 정신 및 선수의 투지에 감동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한 기망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심각한 스포츠 병리현상이라 진단된다(지민준, 2014: 110).

승부조작에 대한 연구 중 이승훈(2017)의 연구에서는 1970년~2016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90건의 스포츠 승부조작 사례를 대상으로 금전개입 여부에 따른 승부조작 특징을 살펴본 결과, 금전개입 시 배팅관련자와 선수의 가담 빈도가 높고 종목은 레이스종목-구기종목 순으로, 시도방법에서는 경기 부분조작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전 미개입시 대상에 있어 선수-지도자-협회 관계자 가담 빈도가 높고, 종목으로는 구기-투기 순으로 좋은 대회 성적을 이유로 고의패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승부조작으로 나타났다.

승부조작의 있어 인과관계 특징은 선수-선수, 선수-지도자, 선수-심판 등 중간에 전문 브로커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 브로커와 공모하여 금전적 이득을 속여 뺏을 목적으로 행위를 계획하고 고의로 경기 결과 또는 승부를 조작하는 부정행위를 자행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승부조작과 연결된 쟁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지금까지 밝혀진 승부조작 가담자와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 둘째, 승부조작의 사태가 어느 시점에서 막을 내릴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셋째, 그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김소은, 2020: 2). 그리고 승부조작 행위는 그 사행성 성립 여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스포츠에 내재한 경쟁원리에 근거할 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사전에 정하고 우연성을 입각하여 재물의 획득 또는 손실이 결정되는 도박과의 차이점이 법적인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지민준, 2014: 110).

사례 2-1. 지도자가 가담한 승부조작

항목	내용	
사례	<p>한 시대를 풍미했던 농구스타 K 지도자로서도 성공가도를 달리던 중 2013년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사건으로, 당시 선수가 아닌 지도자가 연루된 승부조작이라 세간에 관심이 굉장히 컸다. K 지도자는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 받고 KBI에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영구제명 되었다. 최초 승부조작은 1쿼터에 주전선수들을 빼주면 술값을 내준다는 말에 어차피 휴식을 위해 주전들을 뺄 계획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동의하게 된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3차례의 승부 조작을 더 해 총액 37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대해 별거 아니라고 느낀 K 지도자는 그 시기 터진 프로 축구 승부 조작 사건을 보고 그제야 자신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큰일인지 깨닫고 건네 받은 돈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브로커의 협박으로 2년간 시달렸다고 한다.</p> <p>이후 법적처벌과 농구계 영구제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내오다 2016년부터 선수, 감독, 심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방지교육 강사로 나서며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다.¹⁴⁾</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지도자 ↔ 브로커
	문제유형	승부조작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에 대한 인지와 반성의 시간은 언제까지인가? -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고, 농구계에서는 영구제명 상태인데 대중으로부터의 낙인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여야 하는가? - 잘못된 부분에 인정하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져야하는 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은 ‘정의의 원칙’ 에 위반 사안이며,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야 감독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않은 면에서 ‘전문성의 원칙’ 도 위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지도자의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몰어 징역 10월 ·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14) 조홍민(2020.09.22.). 강동희 “속죄는 여전히 나의 길...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스포츠경향.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144/0000691682>

사례 2-2. 승부조작과 대처 사례

항목	내용	
사례 A	<p>프로야구 TA 선수는 검거된 승부조작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은 브로커와 직접 승부조작을 한 TA 선수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간 사실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검찰수사를 받았고 승부조작으로 영구제명이 되었다. TA 선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초구 볼·스트라이크’, ‘첫 볼넷’ 등의 베팅과 관련해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야구의 특성상 투수가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볼, 스트라이크 등에 개입하는 ‘경기조작’ 행위다.¹⁵⁾</p>	
사례 B	<p>야구선수 YH 선수는 4월 30일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의 모교가 아닌 A고교를 졸업한 B 브로커로부터 첫 볼넷 제의를 받아 그 즉시, YH 선수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한 뒤 전화를 끊고 동시에 상대방 번호를 차단했다. 이 브로커는 5월 2일, 또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YH 선수는 ‘신고하겠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한 뒤 번호를 차단했다. YH 선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구단에 신고했고, 구단은 내부적으로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 브로커가 타 구단 선수와도 접촉할 수 있다고 판단해 KBO에 알렸다. 이후 YH 선수와 구단은 KBO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KBO 관계자에게는 프로야구의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¹⁶⁾</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선수 ↔ 브로커
	문제유형	승부조작+불법도박사이트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윤리 의식 강화와 도박근절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 무엇이 이들을(사례A와 사례B) 다르게 만들었을까? -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부조작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한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A는 ‘정의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고, 사례B는 ‘정의의 원칙’ 을 실천한 것

항목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A 선수는 2016년 첫 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2,000만원 구형과 2017년 영구실격(항소했으나 패소) - 관련법률 : 인터넷 불법도박(도박사이트 개설,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참여자)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47조)

<사례 2-1>은 선수가 아닌 지도자가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으로 혐의의 처벌이 확정되고 프로농구계에서 영구제명 되어 감독 출신 승부조작범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사건이다. 이는 승부조작에 있어 K 지도자는 ‘정의의 원칙’과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K 지도자는 분명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과 함께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본 연구자는 이 사례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잘못된 행동으로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다. 대부분 문제를 보면 해결방안에서 처벌을 받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윤리적 해결방안에서 몹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례 2-2>는 승부조작에 대한 선수에 대처 사례로 사례 A의 TA 선수는

15) 이명노(2016.07.20.). 국가대표 이태양의 승부조작, NC는 알았다. 스포츠동아.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382/0000489229>

16) 나유리(2018.06.07.)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076/0003267409>

승부조작 제의에 응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사례 B는 승부조작 제의에 자진신고를 한 프로야구 YH 선수가 좋은 예로, YH 선수는 승부조작 브로커에게 경기 첫 볼넷을 제안을 받았으나 교육받은 대로 구단과 KBO에 신고했다.

최초로 승부조작 제안을 신고한 L 선수는 이후 KBO로부터 포상금 5000 만원을 받기도 했다. 일탈은 교육보다 선수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의 전부인 야구를 놓게 될 것인지, 올바른 길을 선택해 프로 선수로 성공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선수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3. 판정오류와 편파판정

스포츠에서 심판의 판정오류나 편파적 판정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전영천, 2015: 10).

심판의 판정오류에 있어 원인을 박해용(2003)은 신체적요인, 심리적요인, 인지적요인, 환경요인, 경험요인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전영천(2015)은 개인요인,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스포츠에서 심판의 판단은 결국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개인의 주관성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전영천, 2015: 12).

권기남·권기식·이정래(2011)의 연구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대한 제안 유형은 학연 및 지연 관계를 통한 제안, 동료심판을 통한 제안, 감독과 코치를 통한 제안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편파판정에 제안이 왔을 때 청렴하고 정의감 있는 심판으로서 제안을 거절하거나 제안 거절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회피, 소극적인 저항의 양식으로 경기출전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심판은 선수의 행동을 공정하게 판정하고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의무를 갖는다. 경기 중 발생한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경기관련자가 납득하도록 공정한 판정을 내림으로서 심판으로서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판은 주변으로부터 의도하지 않게 불법적 타협을 끊임없이 제안 받는다(전영천, 2015: 13).

심판의 의도적인 편파판정에서는 선수, 지도자(감독, 코치)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승패에 있어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관중으로부터 비난이 대상이 되어 결국 스포츠에 대한 불신으로 스포츠 발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례 3-1. 판정오류

항목	내용	
사례	<p>프로농구에서 결정적인 오심(판정오류)이 발생했다. 경기종료 2분 51초 전 J 구단이 78-70으로 앞선 상황에서 H 구단인 상대편 선수의 두 번째 자유투가 실패했고 J 구단의 K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 H 구단의 S 선수가 K 선수의 팔을 쳤지만, 심판이 J 구단공격권을 선언하자, H 구단 감독은 비디오판독을 요청하였고 경기 감독관과 심판들은 비디오판독 후 H 구단에 공격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했다.</p> <p>이미 K 선수와 S 선수의 볼 다툼 상황에서 파울이 발생했으나, 비디오판독에서 터치 아웃 여부만 판독할 수 있어 K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판독을 했다. H 구단의 S 선수의 파울인데 이를 터치아웃 비디오판독으로 끌고 간 감독관과 심판진의 어이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¹⁷⁾</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심판 → 선수
	문제유형	판정오류
	사유하기	<p>- 현 규정상 비디오판독으로 인해 파울 콜이 선언될 수 없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 규정상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p>
	윤리적 관점	<p>- 심판으로서 자기 분야에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한 사항이며,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기본 관점인 스포츠에서 심판에 오류로 잘 못 판정 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 규정상 비디오판독으로 파울 콜이 선언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묵인하려고 했던 심판은 ‘정의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이다.</p>
기타	<p>- 심판판정에 대한 비디오판독에 ‘챌린지’를 도입하는 ‘로컬 룰’ 검토가 필요¹⁸⁾함. 챌린지 룰을 2019-2020시즌 NBA리그에서도 처음 도입하게 됨¹⁹⁾.</p>	

17) 김인수(2021.01.05.). 프로농구 또 오심...“전자랜드에 더 가혹한가?”.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7694>

18) 류동혁(2021.01.07.). 전자랜드전 오심, 챌린지를 위한 로컬룰 도입 필요하다. 스포츠조선.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076/0003679212>

19) Kurt Helin(2019.07.09.). As expected, NBA owners approve coach’s challenge system for calls next season. NBC Sports. <https://nba.nbcsports.com/2019/07/09/as-expected-nba-owners-approve-coachs-challenge-system-for-calls-next-season/>

사례 3-2. 편파판정

항목	내용	
사례	<p>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심판 중 자질과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파판정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심지어 러시아 심판은 물론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인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심판이 포함되자 애초부터 편파판정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경기 결과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인하여 “역대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피겨사 최악의 흑역사이자 승부조작”이라는 사건이라고도 한다.²⁰⁾</p> <p>사건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점프 실수를 저지른 러시아 A 선수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실수 없는 연기를 펼친 우리나라 K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²¹⁾</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심판 → 선수 / 심판판정+국가차별
	문제유형	편파판정, 승부조작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구성에 있어 편향적인 구성인지에 여부를 확인 후 경기가 진행될 수 없는가? - 경기에 있어 누가 봐도 편향적인 판정을 내리는 심판을 중간에 교체할 수 없나? - 비윤리적으로 따낸 성적, 메달은 인정이 가능한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기본 관점인 스포츠에서 편파적 판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 심판은 ‘정의의 원칙’에 위반하며, 심판으로서 자기분야에 책임을 가지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U규정에 따르면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서한으로만 가능하며, 서한은 경기 30분 이내 제출해야 한다(규정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 	

20) Eknews(2014.02.24.).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최대 스캔들은 김연아 편파 판정. 유로저널 스포츠부. <http://www.eknews.net/xe/432394>

21) 송용준(2014.03.21.). 대한체육회 김연아 판정 논란 심판진 구성 문제 제소결정. 스포츠월드.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321021844>

<사례 3-1>은 잘못된 판정이 비디오판독으로도 확인된 사항이지만 규정으로 인해 판정을 변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경기의 흐름까지 바꾼 판정오류의 사례이다.

심판으로서 자기 분야에 책임을 갖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한 사항이며,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기본 관점인 스포츠에서 심판에 오류로 잘못 판정 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 규정상 비디오판독으로 파울 콜이 선언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묵인하려고 했던 심판은 ‘정의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이다.

누가 보더라도 해당 팀이 억울한 상황이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협회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즌 중에서도 회의를 진행하여 규정을 수정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판도 사람이라 모든 판정에서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발견된 것이 비디오판독²²⁾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로 ‘챌린지²³⁾’가 있다. 우리나라 프로농구에서 챌린지 도입에 대한 것은 작년 시즌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입을 검토했던 협회에서 챌린지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라 잠정연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벗겨주려다가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길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함이 강조되는 스포츠에서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게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들이 때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 발생-해결방안-문제 발생이라는 되풀이 속에서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있어야 하지만, 바탕이 되어야 할

22) 비디오판독은 즉시 채생기법으로, 스포츠경기에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기록 영상물을 보고 판정하거나, 판정 관련 시비를 가리는 판정 기법이다(Wikipedia, 2021).

23) 챌린지는 미국프로농구(NBA)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심판의 판정에 대해 벤치에서 VAR 판독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야구, 프로배구,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NBA도 올 시즌부터 팀당 1번, 작전타임 사용권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챌린지를 허용하고 있다(최만식, 2020.02.11.).

것은 스포츠윤리에서의 응용윤리적 접근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여 문제 해결에 기초로서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사료된다.

<사례 3-2>에 대해서 보면, 명확하게 편파판정이나 승부조작으로 밝혀진 것이 아닌 의혹으로만 남겨진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하나는 심판구성의 문제, 또 하나는 편파판정의 문제이다.

홈 어드밴티지(home advantage)는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큰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있어 왔고 논란이 있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원래가 그런 것이므로 앞으로도 홈에서의 편파판정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는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홈경기를 치르는 여건이 부족한 나라들은 계속 피해자가 되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도 하며, 세계적 스포츠 이벤트를 일부 스포츠 강국들의 메달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판정 논란 당사자인 피겨스케이팅 K 선수는 한 번을 제외한 30개 넘는 국제대회를 전부 해외에서 치렀으며, 유일했던 홈경기에서도 별다른 점수 버프 없이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 사례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기본 관점인 스포츠에서 편파적 판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 심판은 ‘정의의 원칙’에 위반하며, 심판으로서 자기 분야에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이다.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수, 지도자, 심판 어느 누구 하나 소홀 할수 없다. 즉, 스포츠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스포츠에 임해야한다. 그래야지만 스포츠 기본정신인 스포츠맨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4. 도핑과 반도핑

도핑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종목에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는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나무위키, 2021). 즉, 모르고 복용한 약에 대해서도 모든 징계는 선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선수는 단 한 가지의 약물 복용하더라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핑의 개념과 정의는 도핑을 방지하는 반도핑(Anti Doping)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재 도핑의 개념은 약물 복용을 넘어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방법까지도 도핑으로 간주하고 있다(김진훈·채승일·이호근, 2013: 42).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선수가 약물을 사용하는 불공정한 도핑행위가 국내외적인 도핑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도핑은 스포츠윤리와 스포츠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용섭, 2010: 183).

류지영(2021)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인 유혹과 명예를 위하여 기능의 향상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의 획득을 위하여 도핑을 시도하게 되고, 도핑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도핑이 스포츠윤리에 반하다는 것은 확실하나 형사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고 행위자에게 무엇을 근거로 사람에게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선수개인에 대한 신체적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분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된다(류지영, 2021: 23).

사례 4-1. 러시아 도핑 사태

항목	내용	
사례	<p>BBC 등에 의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러시아의 공식 출전이 금지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도핑(금지된 약물 복용)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4년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조치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WAD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 등 각 기구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p> <p>러시아의 도핑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당시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자국 선수들의 도핑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이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참가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²⁴⁾</p> <p>이 때문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도핑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선수에 한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출전이 가능했다. 러시아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유니폼에 국기를 달지 못했고 메달 수여식 때도 러시아 국가는 연주되지 않았다.</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선수 ↔ 국가
	문제유형	도핑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를 위한 약물인가? - 약물을 하지 않은 선수들의 출전을 막는 것은 옳은 것인가? 출전시키는데 옳은 것인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량 향상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깨뜨린다는 점과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 사실을 데이터 조작으로 은폐하였던 점에서 '정의의 원칙' 에 반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반 도핑기구 (World Anti-Doping Agency) www.wada-ama.org -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ww.olympic.org -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www.fifa.com

24) 박세운(2019.12.09). 러시아 4년간 올림픽·월드컵 출전 금지...세계반도핑기구 징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222>

사례 4-2. 유소년과 약물투여

항목	내용	
사례	<p>2019년 전직 프로야구선수가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유소년 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오후 이 전직 프로선수이자, 야구교실 L 대표가 결국 구속되었다.</p> <p>L 대표는 학생들에게 약을 권유했고, 판매했고, 투약을 지도했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심지어 L 대표가 직접 유소년 선수들에게 직접 주사까지 놓았다. 처음에 학부모들에게 금지약물을 권유하면서 피로회복제나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하는데 알약 형태의 먹는 스테로이드를 투약할 때 L 대표는 '프로틴 먹자, 단백질 먹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곤 했으며, 그 외에 에페드린과 같은 약물은 복부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p> <p>또 야구교실의 금지약물 투약을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을 위해서'였다기 보다는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할 수 있다.²⁵⁾</p> <p>이로 인해 구속된 L 대표는 최근(2021년 3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약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²⁶⁾.</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지도자 → 학생(선수)
	문제유형	도핑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 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KBO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한 윤리위반으로 '배려의 원칙' 위반, 학생을 속이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신체적 해를 가했으므로 '무관용의 원칙' 위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 대표 2019년 징역10월 선고(항소하였지만 형량유지)와 6년간 야구계 종사 자격정지 - 약물투여 교사혐의로 법적 조치가능(약사법24조 위반)

25) 민경남, 김정훈, 오수정, 오민주, 이상학(2019.07.03.). "유소년에 직접 약물 주사 놓은 건 이여상 전 프로선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480>

26) 박초롱(2021.03.11.). 이여상發 '금지약물', 전·현직 야구선수들에 유통 정황.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77872>

<사례 4-1>은 국가에서 선수의 도핑에 관련하여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으로 올림픽에 참가를 못하는 된 사례이다.

2014년 11월, 독일의 공영방송(ARD)에서 도핑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산하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에서 근무하였던 검사관 비탈리 스테파노프와 그의 아내이자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올리아 스테파노바가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고 러시아 반도핑기구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공모하여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경기 후에 도핑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샘플을 조작 및 은폐했다는 정보를 폭로하였다. 심지어 육상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대부분이 종목을 불문하고 금지약물을 복용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나무위키, 2021).

이 사건은 러시아의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화 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반도핑기구는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전원 금지 할 것을 IOC에 건의했지만, IOC는 최종적으로 도핑이 확인된 선수들을 제외한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핑을 주도했다는 심각성을 고려하면 러시아에게 면책부를 준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 기량 향상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깨드린다는 점과 국가적 차원에서 도핑 사실을 조작하여 은폐하였던 점에서 ‘정의의 원칙’에 반한 사항이다. 도핑한 선수도 문제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데이터 조작까지 하면서 은폐한 국가는 올림픽 메달과 성적을 단지 물질적 도구로만 생각한 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사례 4-2>는 유소년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자신은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불법도핑을 치밀하게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도핑에 걸리지 않는 투약스케줄까지 작성하고 학부모와 야구 동호인에게까지 영양제라고 속여가며 가격을 흥정할 정도로 판매에도 적극적이었다.

더구나 이로 인해 무슨 성분인지도 모르고 맞은 고등학생 야구선수들은 4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도핑에 관해서는 모르고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더라도 금지약물이라며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엄격하게 결정을 내린다. 선수들의 입장은 참 억울한 상황이지만 선수라면 하나의 약물을 복용이나 투여를 하더라도 재차 확인하고 검증된 기관에서만 해야 한다. 또한 도핑을 권유하거나 투여한 행위자에게도 엄격한 처벌로 다시는 권유나 투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L 대표는 또다시 최근(2021년 3월)에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약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도핑에 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스포츠계에서는 약물복용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의 윤리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L 대표는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한 윤리위반으로 ‘배려의 원칙’ 위반하고, 학생을 속이고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신체적 해를 가했으므로 ‘무관용의 원칙’에 위반한 사항이다.

도핑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엄격해야 한다. 모르고 했을 때의 억울함이 없도록 약 한 가지를 복용하더라도 확인하고 도핑을 권유하거나 시행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 다시는 못 하게 해야 한다.

5. SNS와 책임

SNS관련 윤리적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발언으로 유명한 이 문장은 SNS의 오용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되었으며, 정보의 공유, 사회 문제 공론화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갖춘 SNS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마녀사냥 등의 부정적인 이면 역시 갖추고 있다(문대찬, 2017.11.21.).

유은혜(2020)는 “스포츠 스타와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는 스포츠 팬의 상호작용 결핍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SNS다”라고 하였다.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는 시·공간을 넘어서 광범위한 연결성과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SNS에서의 스포츠 스타는 그들이 이름이 갖는 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팬덤을 형성하고 팬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은혜, 2020: 268).

스포츠 스타는 SNS에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대상이 팬, 지인, 대중 등 각각 다른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유은혜, 2020: 270). 즉, SNS에서 표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진과 글을 올려야 한다.

SNS문제들 가운데 특정어휘와 비속어 사용 또는 경솔한 발언으로 여론에 휘말려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일부 선수의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SNS로 인해 자신의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직은 SNS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올바른 SNS 활용으로 건전한 문화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침과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례 5-1. SNS와 폭로

항목	내용	
사례	<p>2021년 2월 가장 핫했던 사건이다. 사건의 발달은 여자배구 L 선수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갑질”, “나잇살 먹고”, “내가 다아아아 터트릴꼬얌” 등의 발언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팀내 K 선수가 불확설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주어 없는 SNS저격으로 불확설로 사실이 확정될 쯤 L 선수가 K 선수를 저격하면서 SNS에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 게시물을 보고 화가나 L 선수 자매에 대한 만행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사건은 SNS 폭로에서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전환되었다²⁷⁾. 이 사건을 통해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들이 쏟아져 나와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다.</p> <p>심지어 해당 구단측에 따르면 최근 두 선수가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²⁸⁾ 논란이 되고 있다.</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선수 → 선수
	문제유형	SNS + 과거 학교폭력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가? -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 처벌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 학교폭력 폭로로 인해 입은 피해 때문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인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에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책임의 원칙’ 이 강조되어야 할 사항 - 과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무관용의 원칙’ 에 위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한다.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제2·4조). 범법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상 책임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27) 양승남(2021.02.10.). 자승자박된 이다영의 SNS폭로.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2101810003&sec_id=530401&pt=nv

28) 황정은(2021.04.06.). 이재영·이다영 근황, “학폭 폭로자에 법적 대응 검토”.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848>

사례 5-2. SNS와 비방

항목	내용	
사례 A	<p>K 선수와 Y 선수의 SNS활동이 C 감독과의 갈등설을 확산시켰다. K 선수의 트위터에 “리더는 묵직해야 한다.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건 리더 자격이 없다” 라는 글을 남겨 C 감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고 K 선수는 곧바로 “교회 설교 말씀이었다” 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Y 선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었다. C 감독이 한 언론과 인터뷰서 수비수의 혈액형에 대한 발언에 대해 다른 선수들의 실명과 혈액형을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다.²⁹⁾</p>	
사례 B	<p>K 선수는 최근 한 팬과 나눈 SNS 다이렉트메시지(DM)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 선수와 대화를 나눈 팬이 다른 팬에게 이 대화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전달받은 팬이 K 선수의 발언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K 선수는 소속된 팀과 팬을 비하하는 한편, L 전 감독대행의 작전을 비난했다. 또, 동료와 치어리더를 비하하는 단어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한화의 연고지인 대전 등 충청도와 M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³⁰⁾</p>	
분석 관점	대상관계	사례A : 선수 → 감독 / 사례B : 팬 ← 선수 → 구단
	문제 유형	SNS
	사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은 공개적인 공간인데 게시물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할까? - 선수와 팬이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로 퇴출이 되는 게 정당한가? - 선수가 비하 발언을 하였더라도 자신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윤리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에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므로 ‘책임의 원칙’ 이 강조되어야 할 사항 - 상대방에 대한 비하발언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배려의 원칙’ 에 위반한 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톡 같은 SNS로 회사나 동료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렇다’ 	

항목	내용
	고 판정. 회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네이버 법률) ³¹⁾ .

<사례 5-1>의 여자프로배구 L 선수는 평소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해왔고 팀내 불화설 이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켜보던 학교폭력(이하 학폭) 피해자가 L 선수와 과거 있었던 내용들을 폭로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과거 학폭 피해자들의 고백선언으로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혼란에 빠졌다.

이후 학폭 사실이 드러나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L 선수는 또다시 인스타그램 사진 도용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계정을 삭제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SNS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고 올렸다가 과거 자신이 학폭 가해 사실이 폭로되어 또다시 SNS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명인들의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지켜보는 공간으로 올리는 사진과 글에 신중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구단이나 협회에서 SNS까지 관여해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올바른 SNS활용으로 건전한 문화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SNS교육, 적절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 L 선수는 과거 학폭으로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은

29) 김현희(2013.07.04.). SNS 논란, 해프닝 아닌 심각한 문제. nate 스포츠. <https://sports.news.nate.com/view/20130704n05137?mid=s1001&isq=5887>

30) 박상욱(2017.11.20.). SNS에서 팬·감독 비하, 지역감정 조장...한화, KYS 방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132504>

31) <https://blog.naver.com/naverlaw/221520742382>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과거 몇 십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라면 어느 시점부터 징계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등 세부 기준들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례 5-2>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의 SNS논란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감독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프로축구 K 선수와 Y 선수뿐만 아니라 2015년 프로야구 Y 선수는 특정 극우 선향 사이트 단어를 사용했다가 3개월 정지 징계, 프로야구 J 선수의 사생활 폭로, 2017년 9월에는 프로야구 L 선수는 페이스북에 욕설과 함께 ‘야구 안해’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타인이 자신의 ID로 글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1군 엔트리에서 제외, 프로야구 C선수의 상대편 팬과 SNS협박 논란, 프로야구 K 선수의 비하발언 등 SNS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SNS를 사용한 이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SNS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SNS를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삼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결국 SNS라는 도구를 오용하는 사람에게 있다(문대찬, 2017.11.21.).

V. 스포츠 영역에서의 실천적 논의

Ⅲ장과 Ⅳ장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 시도하였다. V장에서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실천적 논의로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 교육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제도적 측면의 실천

1) 상벌규정 세분화와 기준 강화

종목마다 관련협회에 규정이 있다. 특히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벌규정에 내용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체육회를 주축으로 상벌규정, 징계규정에 대한 기준 강화와 내용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종목마다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규정 내용에서 문제를 세분화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른 기준을 더 강화시킨다면,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한다.

2) 기관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책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 중 구단과 협회에 문제도 있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폭력과 폭행에 있어 문제에 대해 은폐하고 방만한 구단과 협회에 대해서도 책임과 그에 따른 제도적 측면에서의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

3) 스포츠 구성원과 통합관리시스템

학교에서부터 프로로 입단하여 은퇴 후까지 선수에 대한 기록부를 통합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소속협회에 대회기록이나 상벌사항을 알 수 있지만, 대상을 선수, 지도자, 감독 등으로 확대하고 소속협회뿐만 아니라 정보열람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면 스포츠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³²⁾. 징계에 대한 정보만 통합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도 확대하고 정보의 내용도 징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성적, 징계내용, 교육이수, 도핑테스트 내용 등 통합프로그램에 상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종목이 변경되는 선수의 기록도 연이어 확인 할 수 있고 스포츠관련기관에 채용 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제도화가 된다면 문제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 사료된다.

4) 스포츠윤리 교육과 의무교육의 제도화

현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는 프로스포츠 구성원 대상³³⁾에 대한 교육과 아마추어는 학부모까지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년에 1번의 이수 개념의 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제도화가 되어야 하며, 단순히 시간 때우기 참여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스포츠윤리센터와 함께 관장하여 진행해야 한다.

32) 교육부(2021.02.24.). 보도자료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65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33) 선수, 지도자, 코칭스태프, 심판, 직원(단체, 구단), 경기관계자 등

2. 교육적 측면의 실천

1) 윤리의식과 교육

스포츠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윤리의식 강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형 교육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발생된 문제에 한해서 그 당시 주목을 받는 문제를 중심으로의 교육 강화만 하지 말아야한다. 교육의 목적은 예방교육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교육으로 교수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서 학습자기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들의 윤리적 민감성과 추론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제확대와 유형별에 따른 윤리교육

윤리교육의 주제확대와 대상에 따른 유형별 세분화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는 프로스포츠 선수, 코칭스태프, 직원(단체·구단), 심판, 경기 관계자 등³⁴⁾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프로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의 주제는 승부조작, 불법도박, 성폭력, 음주운전, 폭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의 주제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에 따른 유형별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대상별 관계간에도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 되고 행위자인 대상에 기준에서 윤리 문제에 성격이 다르므로, 대상에 따른 유형별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2항3, 4호에 해당하는 자(프로스포츠 선수, 코칭스태프, 직원(단체·구단), 심판, 경기 관계자 등)

3) 도덕 교과와 스포츠윤리 교육

2007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현대 생활과 윤리」에서는 ‘문화와 윤리’ 부분 안에 ‘스포츠와 윤리’ 단원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 창달과 활동을 모색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기 위해 스포츠 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조사·분석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40)는 내용이 있었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부터는 스포츠와 윤리 분야는 삭제되었다.

스포츠윤리는 응용윤리의 한 부분으로서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 교과 성격³⁵⁾에 충분히 부합하는 분야이다. 도덕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성실, 배려, 정의, 책임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다루는 것(교육부, 2015: 33)으로 스포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통합교과 개념에서 스포츠윤리는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교과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학생들에게 스포츠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윤리 분야를 「생활과 윤리」 교과에 재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35) 고등학교 도덕과 일반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교육부, 2015: 33).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전통윤리의 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 원칙이 필요하였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현재에는 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의 변화로 윤리의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전통윤리의 잣대가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 원칙인 응용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실천을 강조하는 덕윤리, 배려윤리,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방안으로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스포츠 윤리 원칙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과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스포츠 영역에서의 쟁점과 유형에 따른 윤리적 접근을 통해 이론윤리학과 응용윤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형별 대표적 사례와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위해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이론윤리학의 한계와 응용윤리로서 스포츠윤리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스포츠윤리는 응용윤리에 한 분야이지만 지금까지 인식이 부족하였다. 향후 스포츠윤리 관련 연구에서는 응용윤리로서의 스포츠윤리를 바라보고 다양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윤리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이론윤리학과와의 간극인 스포츠 현장의 윤리적 공백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TAXTOM)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의 문제와 관계간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로 발생 되는 유형과 관계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유형은 조금 다르다. 특히 관계간에서는 행위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문제유형은 조금 다를 수 있었다.

셋째, 이론윤리학적 지식과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응용한 응용(실천)윤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였다.

윤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윤리원칙을 근거하여 스포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였다. 스포츠윤리 원칙은 배려의 원칙, 무관용의 원칙, 정의의 원칙, 책임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으로, 스포츠의 특성인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공정성 등을 반영하였다. 윤리 문제에 있어 판단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도로서 다른 스포츠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설정된 원칙이 정답은 아니지만 스포츠윤리에 있어 판단기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를 발판으로 스포츠윤리 원칙이 수정·보완되어 완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넷째,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하여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설정한 스포츠윤리 원칙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 대표적 사례와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구조적 인식의 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구조적 인식의 틀을 이용한 사례분석은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향후 이러한 지속성을 띤 연구를 토대로 하나의 「스포츠윤리 사례집」이 제공된다면 문제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해결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적인 도덕적 판단을 기초로 스포츠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천적 해결방안에 있어 제도적,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①상벌 규정 내용의 세분화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②관련 기관(구단, 협회)에 대해 윤리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③스포츠 구성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④스포츠윤리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①기본적 윤리의식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 ②윤리교육 주제 확대와 대상에 따른 유형별 세분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③도덕과 교과에서 ‘스포츠윤리’ 분야를 재도입해야 한다.

법이나 규칙은 제도로서 강제하는 것이지만, 스포츠맨십과 같은 미덕은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를 통한 자율적 행동양식으로, 이러한 미덕의 경우에는 선수의 명예와 자부심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개입되는 것

이며, 어떠한 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적 가치가 더욱 상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승훈, 2014: 95).

도덕성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규칙과 기본적 원리들을 준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욕구나 행위들이 충동적이지 않아야 하며 자제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이천희, 1995: 2).

이천희(1995)는 스포츠가 가지는 본질적 요소 등을 이해하지 않은 채 스포츠의 신체적·외부적 형태에만 국한하여 실시된다면 결국 스포츠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낙후된 문화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문화로 승화시킬 때만이 스포츠는 살아남을 수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 훌륭한 경쟁과 우정, 스포츠맨십 등 인격함양을 도모하고 미래 경쟁사회를 준비하는 대비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때 먼저 법적이고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기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가 된다면, 되풀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듯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올바르게 변해야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스포츠의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스포츠계는 당대의 삶과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적 축소판’으로서 스포츠가 지닌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스포츠윤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정당당함’, ‘공정성’, ‘정의’와 ‘용기’ 등을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는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될 때에 스포츠가 우리의 삶에서 가치 있는 문화로 존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계는 생태계로 표현할 수 있다. 스포츠 조직의 구성원들은 먹이사슬처럼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누구 한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무너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에 ‘스포츠맨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스포츠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 문제는 발생 빈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실천윤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첫째, 실천적 스포츠윤리연구의 다양성 추구

단순히 윤리나 철학적 논의의 연구에서 벗어나 스포츠윤리가 실천적윤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스포츠윤리라는 큰 틀 안에 선수의 윤리, 지도자의 윤리, 감독의 윤리, 구단의 윤리, (학)부모의 윤리 등 대상별 윤리와 종목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등을 세분화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관계성에 대한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여러 관계간에 발생되어지는 문제들과 특정 관계간의 문제들의 유형 및 원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관계간에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이 모색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스포츠윤리 원칙 세분화에 대한 연구

본 연구자가 설정한 원칙 하나하나의 세분화 연구를 통해 원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밝히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스포츠 특성에 맞는 스포츠윤리 원칙이 완성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응용윤리분야에서 논의되는 원칙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 원칙을 구안하는 하나의 기초연구로서 향후 원칙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들을 통해 ‘스포츠윤리 원칙’이 완성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넷째, 스포츠윤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연구

본 연구는 사례분석방법이 내포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과하고, 스포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설정한 원칙과 틀을 사용해서 분석하여 응용윤리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 학문적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사례를 정리한 「스포츠윤리 사례집」 발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민(2013). 영미 스포츠철학과 스포츠윤리학의 동향. **움직임의 철학: 한국 체육철학회지**, 21(2), 97-113.
- 강영안(2004). 책임으로서의 윤리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 개념. **철학**, 81, 51-85.
- 고미숙(2004). 배려윤리와 배려교육. **한국교육학연구**, 10(2), 37-62.
- 교육부(2015). **2015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 교육인적자원부(2007). **도덕과 교육과정(별책 6)**.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기남, 권기식, 이정래(2011). 축구심판들의 스포츠 불법타협 제안유형과 저항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217-234.
- 권오륜, 한동일, 김희섭, 김정호(2018).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유학.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3), 39-50.
- 김 식(2015). **레비나스 타자철학에 기초한 스포츠윤리의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 혁(2016). **스포츠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경식, 한승백(2018). 최근 10년간 보도된 스포츠-승부조작 신문기사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3), 21-41.
- 김기홍, 이지연, 정윤경(1999). **한국인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리원(2019). **칸트의 선의지에 근거한 스포츠윤리 탐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명은(2018). **트랜스휴머니즘의 윤리적 고찰: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미숙(2004). 스포츠 윤리 문제의 원인 분석에 대한 일 고찰.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25-38.
- 김상득(2003). 서양철학의 눈으로 본 응용윤리학. **범한철학**, 제29집, 5-34.
- 김석기(2015). 도핑(doping)을 둘러싼 공리주의와 의무론.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3(1), 19-41.
- 김소은(2015). **스포츠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소은(2020). **엘리트 농구선수의 승부조작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슬기(2014). **댄스스포츠 선수의 윤리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영진 역(2003) / P. W. Taylor.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울: 서광사.
- 김용섭(2010). 도핑 규제의 법적 과제. **저스티스**, 115, 183-202.
- 김은철, 송성수(2012). 과학기술시대의 책임윤리를 찾아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5(1), 72-78.
- 김은혜, 박인혜, 김미숙(2021). 응용윤리 관점에서 바라본 스포츠윤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9(1), 59-67.
- 김재호(2005). **피히데 『지식학의 기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 김정효(2013). 스포츠윤리 담론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고찰.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1), 97-114.
- 김정효(2020). **스포츠윤리학**. 서울: 레인보우북스
- 김지호, 김재형, 박성주(2017). 스포츠윤리 연구동향 분석: 한국체육철학회지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5(3), 59-77.
- 김진훈, 채승일, 이호근(2013). 도핑(Doping)과 반도핑(Anti-Doping). **스포츠인류학연구**, 8(1), 41-55.
-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현철(2010). 심포지엄: 생명윤리의 이해.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0(0), 501-508.
- 김형진(2006). **학생운동선수의 스포츠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경부(2008). **德의 함양과 실천에 관한 연구 : 현대 윤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맥킨타이어의 덕 윤리를 中心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궁달화, 박윤명, 조항민, 이수진, 박형빈, 김근혜(2014).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지도서**. 서울: 교학사.
- 남중웅(2002). 스포츠윤리의 사회윤리학적 인식과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 41(5), 95-103.
- 류지영(2021).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의 형사책임. **원광법학**, 37(1), 23-42.
- 문경희(2011). **나딩스(Nel Noddings)의 배려이론이 초등학교 환경가치교육에서 갖는 함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문정애(2009). **Noddings의 배려윤리와 그 교육적 의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문종길(2016). **실천과 응용으로서의 윤리학**. 서울: 책과나무.
- 박병기(2003). 응용윤리학의 방법론에 관한 한 고찰 - 안락사에 관한 도덕 주제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52, 1-18.
- 박병춘(2002). **배려윤리와 도덕교육**. 서울: 도서출판 울력.
- 박성주(2014). 스포츠윤리의 이론적 기초.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2(3), 77-97.
- 박성주(2019). 스포츠윤리학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전망. **체육과학연구**, 30(2), 199-212.
- 박찬구(2004). 덕 윤리와 칸트 윤리 - 덕 윤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칸트 윤리적

- 대응-. **윤리연구**, 제57호, 1-25.
- 박찬구(2012). **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울력.
- 박찬구(2014).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정초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박찬구(2016).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경기: 서광사.
- 박찬구(2020). **생활속의 응용윤리(개정판)**. 서울: 세창출판사.
- 박해용(2003). 한국 축구 심판들의 판정 실책 원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3), 127-138.
- 배문규(2016). 한국 조화 정신의 응용 윤리학적 접근 모색 -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41, 103-131.
- 배용준(2011).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복지사회 실천 윤리로서 가능성에 관하여-. **인문학연구**, 38(1), 273-308.
- 변순용(2019). **삶과 철학 이야기**. 서울: 어문학사.
- 서경호(2006). **스포츠 윤리에 대한 칸트의 도덕철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희영(2012).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관한 연구 : 배려 개념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문희(2012). **여성경찰관의 직업윤리의식 영향 요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 안옥선(2003). 응용윤리학 방법론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불교 응용윤리학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법한철학**, 28, 137-166.
- 양은영(2011). **나딩스의 배려교육 관점에서의 장애이해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현택(2006). 덕론의 스포츠윤리학적 함의.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4(1), 19-33.
- 유은혜(2020). **스포츠 스타-팬 SNS 상호작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학교 대학원.
- 이민혁(2020). 인간의 과거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괄하는 새로운 책임윤리의 이론적 토대 정립 -한스 요사나를 중심으로-. **환경철학**, 30, 121-135.
- 이세영(2012). **나당스의 배려윤리에 기초한 도덕과 수업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훈(2014). **스포츠맨십의 윤리학적 해석과 비판적 정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승훈(2015).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도핑검사 비판론과 개선방안.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3(3), 81-100.
- 이승훈(2017). **금전 및 인적네트워크 개입여부에 따른 스포츠승부조작의 사례 분류**.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이영배(2001).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직업윤리 : 이기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최소윤리의 입장에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원봉, 박균열(2020). 대학생용 스포츠윤리의식 측정도구 개발 기초연구. **인문사회** 21, 11(2), 1863-1874.
- 이을상(2000). 정보사회와 원칙의 윤리학. **한국시민윤리학회보**, 13, 101-123.
- 이정택(2016). 학교체육의 윤리학적 접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2(1), 49-62.
- 이정택(2017). **학교 스포츠윤리 교육과 덕의 실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이제현(2019). **스포츠윤리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이종왕(2006). 스포츠윤리의 정초 가능성.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14(1), 2-17.
- 이주석(2018). **덕윤리의 대두와 주요 논쟁들 : 행위 지침과 행위 견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2016). **칸트의 도덕철학을 기초한 스포츠윤리의 방향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항(2015). 스포츠에서의 덕 윤리 적용 가능성 연구: A. MacIntyre 덕 윤리에서 ‘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31집, 185-215.
- 이진우 역(2020) / 한스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파주: 서광사.
- 이천희(1995). 스포츠 윤리와 도덕성.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3(1), 1-11.
- 이학준(1998). 스포츠 윤리의 사회윤리학적 접근과 의의. **한국체육학회지**, 37(1), 58-69.
- 임미원(2017).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법철학연구**, 20(1), 101-136.
- 임석원(2017). 스포츠에서의 공정성과 평등. **철학탐구**, 46, 201-231.
- 전영천(2015). **스포츠 심판의 판정 오류와 편파성의 원인, 심리적 결과 및 개선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정 결(2018).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메타 윤리와 신경 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20, 185-210.
- 정근영, 조춘환, 김수정(2020). 배려윤리를 통한 태권도 인성교육 가능성 고찰: 나딩스의 배려윤리를 기반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103-113.
- 정웅근, 김홍식(2000). 스포츠 윤리(倫理) 담론(談論)의 새로운 방향(方向). **한국체육학회지**, 39(2), 67-76.
- 정탁준, 장동익, 조주현, 추정완, 박임희, 안번기, 노유리, 신방호(202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연구용**. 서울: 지학사.
- 조가람(2020). 특수체육실천영역에 관한 윤리학적 고찰. **체육과학연구**, 31(2), 293-305.

- 지동철(2007). **儒學倫理의 스포츠倫理에서의 含意**.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지민준(2014). 국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례에 대한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3), 109-116.
- 채승일, 김진훈, 박근, 이호근, 장해상(2014). 현대스포츠의 6가지 비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9(1), 15-35.
- 채승일, 김진훈, 박근, 이호근, 장해상(2014). 현대스포츠의 6가지 비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인류학연구**, 9(1), 15-35.
- 최만수(2018). **스포츠미디어 저널리즘의 사회윤리적 쟁점과 윤리성 정초**.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최병문(2009). 일반논문 :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4), 257-278.
- 추병완, 류지한 역(2000) / 리차드 세버슨. **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 한국산업인력공단(2016).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 직업윤리(교수자용)**.
<https://www.ncs.go.kr/th03/TH0302List.do?dirSeq=130>
- 한국체육철학회(2015). **스포츠윤리(2급 스포츠지도사)**. 서울: 대한미디어.
- 한국프로스포츠협회(2017). **2017 프로선수 1차시 PPT교안**. <http://data.prosports.or.kr/board/m06/sub/main>.
- 한동일(2017). **덕 윤리 관점에서 본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의식과 가치관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Almond, B. (2011). Applied ethics. In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Taylor and Francis. Retrieved 15 Aug. 2020, from <https://www.rep.routledge.com/articles/thematic/applied-ethics/v-2>. doi:10.4324/9780415249126-L005-2

- Fraleigh, Warren P. (1984). *Right Actions in Sport: Ethics for Contestants*.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Publishers.
- Frankena, W. K. (1963). *Ethics*. Prentice Hall.
- Kim Me Suk, Lim Young Hee, Ha Hye Seok. (2018). Trust in Dancesport
Competition Judges and Moral Philosophy of Kant.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6(3), 111-120.
- Onora O'Neill(2002). *Autonomy and Trust in Bio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onto, Joan(1993). *Moral Boundaries*. New York: Routledge.

<인터넷 검색 자료>

- 교육부(2021.02.24.). 보도자료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
한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
표**」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3655&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나무위키. 검색어 ‘2014 소치 동계올림픽/피겨 스케이팅’. <https://namu.wiki/w/2014%20소치%20동계올림픽/피겨%20스케이팅%20판정%20논란>.
(검색일 : 2021.03.31.)
- 나무위키. 검색어 ‘도핑’. <https://namu.wiki/w/%EB%8F%84%ED%95%91#fn-1>.
(검색일 : 2021.03.31.)
- 문화체육관광부(2020.04.28.). 보도자료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
센터 설립 착수**」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61
- 우리말샘. 검색어 ‘스포츠 윤리’.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

?sense_no=1270569&viewType=confirm. (검색일 : 2020.07.25.)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변증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16694&cid=41908&categoryId=41971>. (검색일 : 2020.08.06.)

두피디아. 검색어 '공리주의'.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5598. (검색일 : 2021.01.25.)

두피디아. 검색어 '덕윤리'.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80228001565523. (검색일 : 2020.07.25.)

두피디아. 검색어 '의무론'.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71128001555654. (검색일 : 2021.01.25.)

두피디아. 검색어 '체벌'.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7964. (검색일 : 2021.02.11.)

위키배움터. 검색어 '생명윤리'. <https://ko.wikiversity.org/wiki/생명윤리>. (검색일 : 2021.02.11.)

Wikipedia. 검색어 '변증법'. <https://ko.wikipedia.org/wiki/변증법>. (검색일 : 2020.08.06.)

Wikipedia. 검색어 '비디오판독'. https://ko.wikipedia.org/wiki/비디오_판독. (검색일 : 2021.01.31.)

<사례분석관련 자료>

문대찬(2017.11.21.). 퍼거슨 또 1승? 장성우부터 김원석까지...SNS 잔혹사.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711210113>

김기범(2019.01.23.). 한국수력원자력 여자 축구팀 '경주한수원' 성폭행 사건, 진실은 어디에?. 시사오늘, 시사ON.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69>

김인수(2021.01.05.). 프로농구 또 오심...“전자랜드에 더 가혹한가?”.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7694>

김현희(2013.07.04.). SNS 논란, 해프닝 아닌 심각한 문제. nate 스포츠.
<https://sports.news.nate.com/view/20130704n05137?mid=s1001&isq=5887>

나유리(2018.06.07.).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076/0003267409>

류동혁(2021.01.07.). 전자랜드전 오심, 챌린지를 위한 로컬룰 도입 필요하다.
 스포츠 조선.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076/0003679212>

민경남, 김정훈, 오수정, 오민주, 이상학(2019.07.03.). “유소년에 직접 약물 주사놓은 건 이여상 전 프로선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480>

박상욱(2017.11.20.). SNS에서 팬·감독 비하, 지역감정 조장…한화, KYS 방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132504>

박세운(2019.12.09.). 러시아 4년간 올림픽·월드컵 출전 금지…세계반도핑기구 징계.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222>

박초롱(2021.03.11.). 이여상發 ‘금지약물’, 전·현직 야구선수들에 유통 정황.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77872>

송원형(2021.02.20.). “박철우 눈빛 마음에 안든다” 이상열은 폭행했고 김호철은 눈감았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20/M2PX7JQARBDI5EL6Y5O4DZK6UQ/>

송용준(2014.03.21.). 대한체육회 김연아 판정 논란 심판진 구성 문제 해소결정. 스포츠월드.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321021844>

양승남(2021.02.10.). 자승자박된 이다영의 SNS폭로. 스포츠경향.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2101810003&sec_id=53

0401&pt=nv

이동철(2019.01.23.). 女축구 한수원, 하금진 전 감독 성희롱 해임 사실 알고도
선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22157954007
?section=search](https://www.yna.co.kr/view/AKR20190122157954007?section=search)

이명노(2016.07.20.). 국가대표 이태양의 승부조작, NC는 알았다. 스포츠동아.
<https://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382/0000489229>

조홍민(2020.09.22.). 강동희 “속죄는 여전히 나의 길…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 스포츠경향. [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
article/144/0000691682](https://n.news.naver.com/sports/basketball/article/144/0000691682)

최만식(2020.02.11.). KBL 비디오관독 '챌린지' 도입 브레이크 걸린 이유. 스포츠조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0620.html

황정은(2021.04.06.). 이재영 · 이다영 근황, "학폭 폭로자에 법적 대응 검토".
제민일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848>

Eknews(2014.02.24.).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최대 스캔들은 김연아 편파 판정.
유로저널 스포츠부. <http://www.eknews.net/xe/432394>

Kurt Helin(2019.07.09.). As expected, NBA owners approve coach's
challenge system for calls next season. NBC Sports. [https://nba.
nbcsports.com/2019/07/09/as-expected-nba-owners-approve
-coachs-challenge-system-for-calls-next-season/](https://nba.nbcsports.com/2019/07/09/as-expected-nba-owners-approve-coachs-challenge-system-for-calls-next-season/)

ABSTRACT

Ethical Approach Based on Issues and Types of Sports

Eun-Hye K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unethical problems arising from sports and analyze specific cases through sports ethics principles to find ways to solve problems. In other words, through ethical approaches based on issues and types in the field of sports, we devise sports ethics principl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oretical ethics and applied ethics. In addition, this criterion presents a framework for structural recognition for interpretation of representative examples by type and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se results will serve as a basis for decision-making on ethical issues to conform to the concept of 'justice' in the sports sector amid a dilemma in which moral decisions must be made at a crossroads between choice and judgment. In summa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consider the limitations of theoretical ethics and the applicability of sports ethics as applied ethics.

Sports ethics is a field of applied ethics, but so far there has been a lack of awareness. In future research on sports ethics,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nature of practical ethics that looks at sports ethics as applied ethics and seeks solutions to various ethical problems.

Second, we identify ethical issues arising in the field of sports and ethical gaps in the field of sports, a gap between theoretical ethics.

To this end, we utilize a big data analysis solution called TEXTOM. Analysis shows that ethical issues arising in the field of sports are 'diverse and complex'.

We can also consider the problems between individual problems and relationships, and the types of problems that arise from individual problems and the types of problems that can arise between relationships are slightly different. In particular, the type of problem could be seen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who the agent was.

Third, we devise sports ethics principle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pplied (practical) ethics that apply theoretical and meta-ethics knowledge.

Based on the ethics principles covered in ethics, we devise sports ethics principles that reflect sports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s of sports ethic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orts such as consideration, zero tolerance, justice,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of judgment in ethical matters, i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sports-related research as an attempt.

Although the principle set is not the answer, it is a response to studies that have raised the need for judgment standards in sports ethics. It is hoped that the principles of sports ethics will be revised and supplemented based on this research in the future.

Fourth, we attempt to interpret the problem from various perspectives using the framework of structural recogni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for sports ethics principles that set out problems arising in the sports world, representative examples of different types and interpretations of the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ere analyzed by structural recognition framework. Case analysis using the framework of structural recognition makes it easier to approach an approach to a problem based on examples, and is a basic task to attempt interpret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If a 「sports ethics casebook」 is provided based on such sustainable research in the future, it can be used as a data for approach and solution to problems in case of problems.

Fifth, we present practical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sports reality based on common moral judgments about 'right and wrong'.

Institutional aspects of practical solutions, ①The details and standards of the content of the punishment and punishment regulations shall be strengthened. ②Institutional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to hold

relevant institutions (clubs, associations) accountable in the event of ethical problems. ③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ports members shall be introduced. ④Sports ethics edu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s compulsory education.

In terms of education, ①Education to strengthen basic ethical awareness should be provided. ②Ethical education shall be strengthened by expanding topics of ethical education and by classification by subject. ③The field of 'sports ethics' should be reintroduced in ethics and curriculum.

When we encounter a variety of problems that arise in the field of sport, we first think of them in terms of legal and institutional terms. However, looking at the problem from various ethical perspectives, will it not be solved if we recognize the basic problem and change it? Just as society can change only when people change, it is believed that the ethical awareness of everyone participating in sports must change properly to reduce ethical problems and increase the value of sports.

The sports world is an effective means of learning the moral values of sports as a 'social miniature' reflecting the lives and society of the time. Sports will exist as a valuable culture in our lives when constant efforts to protect ourselves, such as 'fair and square', 'fairness', 'justice and courage', which are the ultimate goals of sports ethics, continue.

And the sports system can be described as an ecosystem. Members in the sport are connected in relation to each other, as is the food chain. If any of them is left out, it will collapse, and in order to prevent this,

'sportsmanship' is at the center of it with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each other.

In other words, respecting and caring for each other in a community called sports will naturally reduce the frequency of ethical problems, which can be seen as 'practice ethics'.